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고경주 전 연방 보건부 차관보의 아들 대니얼 애릭 고(32) 전 보스톤시 비서실장이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다

한인 3세 대니얼 고 연방 하원의원 도전

대니얼 고 9월 5일 사실상 연방하원의원 출마선언
고경주 전 연방보건부차관보 아들, 고평림씨 손자
마티 월시 보스톤시장, 고 전 실장 출마 전폭 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고경주 전 연방 보건부 차관보의 아들 대니얼 애릭 고(32) 전 보스톤시 비서실장이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다. 샘윤 전 보스톤 시의원 이래 보스톤 지역에서는 두번째 한인의 선출직 출마다. 앤도버 출신인 고 전 비서실장은 9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예비선거준비위원회를 설

립해 매사추세츠 제 3선거지구의 연방하원직 선거운동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아직 “예비”란 단어를 여전히 달고 있지만 자금모금위원회 까지 이미 꾸렸다. 고 전 실장은 8월 9일 니키 송가스 연방 하원의원이 내년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다. 이를 보도했던 보스톤

글로브는 같은 9일 다시 앨런 퍼피 미헨 씨의 출마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헨 씨는 5일 대니얼 고의 출마선언과 같은 날 불출마 선언을 발표했다. 고 전 실장은 글로브의 보도시점인 8월 초 마티 월시 시장에게 자신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월시 시장은 100% 그의 출마를 지지했다. 두 사람은 사퇴가 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가장 출마선언에 좋은 시점을 고려, 8월말까지 비서실장 직을 수행키로 했다. 고 전 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던 더 보스톤글로브와 보 >>7면으로 계속

사고 (社告)

허리케인 하비 수재민을 돕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지난 8월말 텍사스에 들이닥친 하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고자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때일수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는 것이 이민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소중한 정성을 보스톤코리아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성금은 체크로 보내주시고 지불은 American Red Cross로 작성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하나 적십자사에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금 모금은 25일에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보스톤코리아
주소: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Payable to: American Red Cross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출발 한국행항공권 \$870~부터

미서부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고국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보세티비/샌프란시스코 4박5일 \$465~	서남권 3박4일 \$609~
미서부3대개봉 4박5일 \$470~	충청권 3박4일 \$609~
미동부관광 (뉴욕 포함)	선국일주 8박9일 (시애틀, 로키산, 밴쿠버)
워싱턴 / 나이아가라 / 워싱턴 4박5일 \$680~	\$1,388~
미동부3대개봉 4박5일 \$800~	

IACE TRAVEL 부의전화: 1.617.424.8956 / 1.866.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9월 한달 프로모션 \$9.99 (정가 \$14.99)

KBS, MBC, SBS, SBS Plus, tvN, XBS, OCN, Olive, OCN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초대 BU 대학원 한인학생회 (KGSA) 공식 출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제1대 보스톤 대학의 한인대학원학생회 (Boston University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이하 BU KGSA)가 이번 2017년 가을학기부터 공식 출범한다.

보스톤 대학(BU)에는 약 500명 가까이 되는 한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그만큼 학교 내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스톤 대학 내 한인학생회(KSA)와 한인유학생회(KISA) 등 여러 한인단체들이 있어왔지만 석·박사 학위과정의 한인 대학원생들을 대표하는 그룹은 없었다. 이에 올해 첫 출범하는 BU KGSA는 대학원생 커뮤니티의 편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보스톤 대학 내 대학원생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BU KGSA는 학생 및 동문들 간, 그리고 보스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보스톤 대학 한인유학생회(KISA)와의 네트워킹, 보스톤 칼리지 한인대학원생회(BC KGSA)와의 합동 이벤트,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무비나잇 등 현존하는 여러 학생회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스톤 대학을 넘어 보스톤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더 많은 한인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BU KGSA의 회장 이경민 (경영대 박사과정 3년차)씨는 그룹 창설을 통해 “보스톤을 넘어 한국과 미국 전체에 보스톤 대학의 한인학생회의 입지를 넓히고 싶다” 며 “사명감을 가지고 보스톤 내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리고 부회장 윤종원 (로스쿨 3학년)씨는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고 전했다.

다가오는 9월 22일 첫 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으로 보스톤 한인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BU KGSA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 자세한 BU KGSA의 소식과 활동 정보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roups/BUKGS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k@bostonkorea.com

허리케인 하비 수재민을 돕읍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의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의 거리는 천년에 한번 정도 내린다는 사상 최대의 호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집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수재민으로 전락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과 압박이 전례없이 강력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자를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민자들이 강력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로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재해도 아픔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가림하기 바쁜 이민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

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도리라 생각 해 고민 끝에 수재민 성금모금을 시작합니다.

단 1불이라도 좋습니다. 소중한 정성을 보스톤코리아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성금은 체크로 보내주시고 지불은 American Red Cross로 작성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는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하나 적십자사에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부 명단은 보스톤코리아 신문에 올리겠습니다. 다만 금액은 표시하지 않을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이왕 시작한 모금이니 가능하면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금 모금은 25일에 마감합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전쟁 발발시, 유학생들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교부 대형 재난 매뉴얼 보유, 전쟁 매뉴얼은 없어
미국 난민 요청도 불가, IMF대처럼 취업 허용가능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한반도 내에서는 뚜렷한 전쟁의 위기감은 찾기 힘들다. 굳이 공포에 내몰릴 이유는 없지만 지금은 차분히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해 대비책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일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대피훈련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3월부터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관광 제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 내 일본인들 대피 요령까지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내 유학생들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태로 보인다. 보스톤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이은별 씨는 “한국에서 실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어난다면 가족과 연락을 가장 먼저 취할 것”이라며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들도 공항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유학생 등 재외

국민이 기댈 곳은 바로 재외 공관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과 단기 비자 방문객들을 위한 전쟁 매뉴얼 여부를 주보스톤 총영사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전쟁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외교 공무원들의 자체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오진관 영사는 구체적으로 “서울과 교신하는 방법, 각 시나리오 별 대처 행동이 매뉴얼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오 영사는 “큰 재난이나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조치를 위한 매뉴얼이 있어 전쟁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면 대형 재난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쟁 매뉴얼을 새로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 시 한국에 병역의무가 있는 남학생들의 의견은 대체로 엇갈렸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에 실제 전쟁 발발 시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보스톤 대학교 재학중인 4학년 김하람 씨는 “전쟁이 난다면 한·미 협력하에 항공이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선박편이 준비될 시 즉시 귀국해 참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병무청은 미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은 “정부에서 동원령을 선포한 후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에게 귀국명령을 하게 되어, (실제귀국은) 전쟁 발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병무청은 “귀국 명령을 받은 국외체류 병역의무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토해양부에서 비행기 또는 배편을 마련해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상황은 넉넉치 않다. 성기주 이민 전문 변호사는 실제 전쟁이 일어날 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 변호사는 “법정 개념 상 미국에서의 난민은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성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가 IMF때 한인 학생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있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kbk@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열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김보경 Bo Kyung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입국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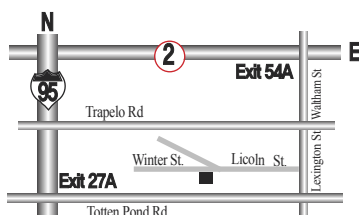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7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9, 2017

Class	Time
PSAT/SAT I Prep 9/9/17 open	9:00 AM – 11:00 AM 11th Grade
PSAT Prep 9/9/17 – 3/3/18	1:00 PM – 3:00 PM 9th/10th Grade
SAT I Prep 9/9/17 – 11/25/17 (as needed)	3:30 PM – 5:30 PM 12th Grade
SAT II Prep 9/9/17 – 11/25/17	6:00 PM – 8:00 PM Subject Tests 10th/11th/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주 민간한국문화원 레몬스터한국학교 새로 설립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 벽 기자 = 매사추세츠 민간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Service of Massachusetts, 이하 민간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가 “KCSM 레몬스터한국학교” 라는 정식 명칭으로 9월 17일 문을 열고 오는 2017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는다.

레몬스터한국학교는 동포 2,3세를 위한 한국어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외국인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 한국 동요, 한국 역사, 미술, 붓글씨 등 다양한 교과 과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앞장 설 인재를 키우게 된다.

레몬스터 한국학교는 민간문화원의 세 가지 프로젝트중의 마지막 단계다. 먼저 2013년 매사추세츠주 오렌지 타운에 한국도서관을 건립하여 600여권의 한국도서를 한인들에

게 대여해왔다. 주로 단체를 통해 그 근처의 한인들에게 빌려주고 대학의 한국어 반에도 대출하는 등 한국 문학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문화원은 지난해 ‘코리아리터닷컴 (Koreanli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한국문학을 영문으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소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유메스 애머스트대학에서 시낭송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을 넘어 실생활 무대로도 진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 중 유희주원장은 “언어가 한 나라의 대표문화이므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를 알려야 함을 깨닫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레몬스터한국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KCSM이 진행하는 한국문화 세계화의 세



레몬스터 한국학교 유희주교장과 학생들 모습

번째 프로젝트다.

유희주교장은 “우리 한국학교는 민간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한국도서 보급 사업, 한국문학 영문번역, 한글 및 문화 교육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책을 함께 나누

고, 시낭송 이벤트, 동시의 번역 활동 등 다양한 교육은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 고 전했다.

레몬스터한국학교는 지난 5월에 보스톤 영사관에 한국학교 등록을 마치고, 교사진을

확충하여 9월 17일에 새로운 학기 일정을 시작한다. 등록에 관한 문의는 교장 유희주 (koreanliteditor@gmail.com, 978.846.8172), 혹은 교감 김현주 (hkimpw@yahoo.com, 678.516.4974) 로 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한미 노인회 임원회 개최 9월 행사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노인회는 8월28일 앤도버소재 파넬라에서 임원회를 개최하고 9월 행사 계획을 마무리했다. 회의에는 유영심 회장을 비롯 김용진, 윤철호, 최영진, 황진희, 이현경 씨가 참여했다.

노인회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유영심 회장(978.994.5490)에게 할 수 있다.

9월 첫주 수요일부터 사랑방 오픈 9월6일, 20일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제선 평화의팡 수련회

9월26일 화요일 11시 하반기 정기 이사회 장소 Methuen buffet

10월 노인 추석잔치 뉴욕관광 12월 총회 날짜 미정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부어 인삼창

갱년기 여성건강
[인삼향 신진 생리 조절]

면역력 증진
[환경호르몬 삼배 예방]

홍삼 6대기능
[식약처 인정]

항산화 작용
[노화억제]

피로 개선
[기력회복]
[정력개선]

기억력 개선
[주의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 합병증 예방]

홍삼정 3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알고 계시나요?
미삼을 찾은 많은 손님들께서 큰 돈을 지불하고 홍삼 음료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수송용 리미트 표기어 Ginseng Drink나 Beverage 라고 적혀있을경우 홍삼 함유량이 아주 미미한 제품입니다.

홍삼정 3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3+1

홍삼정 3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프로모션 기간
9월 10일 (일) 까지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5회 미술 전시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인 윤동주 (1917-1945)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술 전시회가 오는 9월 23일(토)부터 10월 7일(토)까지 렉싱턴 아트 앤 크래프트 소사이어티(Lexington Arts & Kraft Society)에서 열린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로 시작하는 서시의 시인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에 굴하지 않는 양심적 지식인으로 27세의 나이에 옥중에서 요절했다. 일본 유학 후 귀국 직전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 2월 16일 옥사했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올해로 제5회를 맞이 하는 연례 전시회의 주제로 <별 헤는 밤>, <서시>, <새로운 길> 등 윤동주 시인의 작품들을 정하고, 원작 시 또는 이를 바탕으로 작곡된 가곡이나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로 전시회를 구성하였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혜경, 김영숙, 김영아, 김희정, 박혜영, 변순득, 신영, 안영신, 오지현, 유수례, 이재욱, 임태규, 조미애, 조인선, 최혜경, 허선희, 데이비드 크리스토퍼를 포함한 총1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특별히 지난 7월에 세상을 떠난 고(故) 정원재(Wonjae Cha) 작가의 유작도 함께 전시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9월 23일(토) 오후 2시-4시에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하면 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변순득 작가 작품 (윤동주)

문의: 781-367-5993)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미술전시회
Lexington Arts & Craft Society
13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전시 기간: 9월 23일(토) -10월 7일(토)
리셉션: 9월 23일(토) 오후 2시-4시
운영시간: 월요일 휴관, 화-금 및 일요일 오후 12시-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주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
bostonkorean@hotmail.com

가을의 쓸쓸한 낭만, 바이올린 콘서트

오아시스 카페 뮤직나이트 무료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오아시스 카페 뮤직 나이트 (Oasis Café Music Night)가 바이올리니스트 박기나와 피아니스트 지희연의 협연으로 가을 맞이 저녁 콘서트 "Autumn Melancholy"를 선보인다.

9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보스톤한인교회 EEC(Education & Community Center)의 칠드런스 채플에서 열리는 오아시스카페 뮤직나이트에서는 모짜르트, 그리그,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이 연주된다. 고전시대부터 현대까지 온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구성되어 가을 저녁의 낭만, "Autumn Melancholy"를 만끽할 수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기나는 뉴잉글랜드음악원(NEC)에서 석사 학위, 보스톤대학(BU)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콩코드음악원(CCM)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며, 보스톤심포니(BSO)와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지희연은 뉴잉글랜드음악원(NEC)에서 석사 학위, 보스톤대학(BU)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그녀는, 현재 뉴잉글랜드음악원(NEC)프렘스쿨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

음악회 입장은 무료이며, 공연 후 무료로 간단한 다과도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보스톤한인교회



회의 국내 선교위원회가 후원하며, 자세한 문의는 www.ecckcb.org, email: ecckcb@gmail.com를 통해 할 수 있다.

일시: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Children's Chapel (보스톤한인교회 Education & Community Center 내)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작년 2월27일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모습

2017년 가을 정기 교사연수회

NE 재미한국학교협회의 주최 첫 행사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가 이현경 신입회장을 선출 후 첫번째 행사로 가을 정기 교사연수회를 개최한다. “2세 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과과정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오는 9월 토요일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이현경 회장은 “새학기를 맞아 2세들의 뿌리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이번 교사연수회를 개최하며 간단한 아침과 점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의는 전체강연과 분반 강의로 나뉜다. 전체강연은 윤정운 중앙대 교수가 <교사 건강을 위한 시간>이란 첫번째 강연을 진행하고 윤자영 강사가 두뇌의 <신비한 경험-음악치료 (Music Therapy)>란 제목의 강연을 이어 진행한다. 분반 강의는 각 강의실로 이동해 박현아 강사가 <느끼고•맛보고•보고•듣고•말는다>란 제목으로 강연하며, 이정설 강사가 <지각과 생각을 키우는 작문교육>이란 제목으로, 홍순주 강사가 <아이디어 넘치는 초급이상 교수법>이란 제목의 강의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어린 자녀를 둔 교사를 위하여 얼굴 그

리기와 만들기 방으로 나뉜 동반자녀 놀이방도 윤미아 이사장 후원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사연수회에는 각 한국학교 교사, 이사, 학부모 및 2세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한인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원하는 한인이나 교사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문의는 이현경 회장 (978-994-6177/sjks.principal@gmail.com)이나 최연식 부회장 (younschoi@gmail.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날짜: 9월9일 토요일
시간: 9시부터 1시까지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 및 교실 1
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017학년도 가을학기 오리엔테이션을 9일 오후 2시부터 뉴튼 소재 학교에서 개최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가을학기 학사일정 및 학교소개, 반배정 인터뷰가 진행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기초준비반부터 성인반까지 오전교육 및 오후특별교육으로 진행된다. 오전교육은 기초1-2과정(김희현 리더 교사), 기초3-4과정(이성희 리더교사), 초급과정(주민정 리더교사), 중급과정(김소희 리더교사), 세종과정(김민정 리더교사), 작문교육부(이정설 리더교사), 음악교육부(신민영 리더교사) 등 모두 7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에는 한글과 역사는 물론 작문 및 음악교육 그리고 서예, 사물놀이 등의 전문문화 교육이 과정별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태권도, 미술반, 발레반 및 서예반 수업이 특별활동으로 진행된다.

한국학교는 남일 교장을 중심으로

로 변옥화 회장이 이끄는 학부모회, 윤경숙 이사장이 이끄는 이사회가 지원한다. 교무는 박원경 교사 맡고 있다.

지역 최대규모이자 개교 42주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9월 16일 개학하며 개학전 1차 및 2차 소집행사를 갖는다. 기초준비반 및 기초1-2과정의 경우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2세들의 뿌리교육에 함께 동참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교사 지원은 남일 교장 (508.523.5328, ksneusa@verizon.net)에게 할 수 있다.

1. 신입생 1차 소집일: 2017년 9월 9일(토) 오후 2-4시 (강당, 접수:1시 반부터)
2. 신입생 2차 소집일: 2017년 9월 16일(토) 오전 8시 반 (126호 교실)
3.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www.ksneusa.org
bostonkorean@hotmail.com



기초3과정 김경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제3지역구 출마 노리는 후보 누가 있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로 71세가 되는 니키 송가스 연방 하원의원의 제3지역구를 노리는 후보군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제 3지역구의 핵심 지역인 로웰을 커버하는 신문 로웰 썬(Lowell Sun)은 가장 강력한 후보로 5일 불출마를 선언한 앨런 머피 미헨과 아이린 도노휴 주 상원의원을 꼽았다.

도노휴 주 상원의원은 과거 로웰 시장을 두차례 역임했고 지난 2007년에는 니키 송가스 의원과 예비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선거에 아주 능하다는 얘기가. 도노휴 의원은 분명 재출마에 관심을 두고 있다. 도노휴 의원은 현재 주 상원 스텐리 로젠버그 의장의 고위 당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출마가 100%는 아니지만 출마 시 대니얼 고 전 비서실장의 가장 강한 경쟁 상대가 될 것을 보인다.

또 한 강력한 여성 의원은 앤도버 출신의 바바라 엘탈리언 주 하원의원이다. 엘탈리언 의원은 니키 송가스의 의



아이린 도노휴 주 상원의원

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 “나는 3지역구 여성 및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옹호했던 송가스 의원의 발자국을 최선을 다해 연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원직 출마를 절실히 모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 3지역구 연방하원의원 마틴 미헨 매사추세츠 주립대 총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로리 로우레이로 드러낸 씨도 앨런 머피 미헨 씨의 불출마 선언 후 심각하게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는 보도했다.



바바라 엘탈리언 주 하원의원

이외에 드래컷 주 하원의원 콜린 게리, 그로톤의 주 하원의원 실라 해링턴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비록 민주당 출신의 후보에 비해 가능성이 낮지만 공화당 출신의 후보를 살펴보면 가드너의 마크 호키 시장이 3지역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로웰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피스컬 얼라이언스의 창시자 릭 그린 씨는 5일 다음 날에 선거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한인 3세 대니얼 고 연방 하원의원 도전

샘윤의 아픈 기억 간직 한인들, 기대반 우려반

▶▶ 1면에 이어서

스톤헤럴드 등은 출마 선언을 따로 보도하지는 않았다. 보스톤매거진과 보스톤 지역 공영라디오 WBUR 등은 8월 중순 고 전 실장의 보스톤 시 비서실장직 사퇴에 대해 보도했다. 로웰썬, 앤도버 이글트리분, 앤도버타운뉴스는 이미 몇 차례 출마 가능성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고 전 실장은 자신의 선거캠페인 웹사이트 koh2018.com을 통해 위협 받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회복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출마 선언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균등한 경제적 혜택, 양성평등,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 추구 보장 등의 진정한 미국의 가치를 추구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연관된 이야기로 아메리칸 드림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시리아 출신인 자신의 외증조부모는 지금과 같으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겠지만 1백년전 로렌스로 이주해 열심히 일해 정착했다. 결국 조부모는 미 군역을 마치고 이민인 후과를 개업했다. 애릭 아이앤이어 어소시에이트에서는 현재 어머니인 클라우드에 애릭 및 삼촌들이 일하고 있다. 아버지의 부모도 한국에서 이민해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밝혔다.

고 전실장은 “부모님들의 노력과 앤도버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로 어린시절 주의력 결핍장애(ADHD)를 이겨낸 것이 공직에도 전하게 만들었다” 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지역구내 37개 시와 타운을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여러분과의 만남



대니얼 애릭 고(32) 전 보스톤시 비서실장

을 기대하고 있으며 겸손하게 연방 하원직 기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들은

지난 8월초 보스톤코리아의 후보가 능성 보도 후 과거 샘윤 시의원의 보스톤 시장 도전을 떠올리며 너무 일찍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한인 단체장은 그가 보스톤시 비서실장 외에 뚜렷한 정치경험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대니얼 고는 최근까지 마틴 월시 보스톤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으며 지난 4년간 18,000명의 공무원을 관리했다. 비서실장을 맡기전에는 허핑턴포스트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 앤도버에서 출생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전공했다. 부인 에이미를 대학원에서 만나 최근 결혼했다.

2014년 보스톤시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당시 보스톤 글로브는 화려한 이력서와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할아버지는 고광림 씨로 주미 한국대사를 역임했다. 아버지인 고경주(하워드 고) 씨는 매사추세츠 보건부 장관,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삼촌인 고홍주(헤럴드 고) 씨는 예일법대학장,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법률 자문 등을 맡았다.

hsb@bostonkorea.com

엘렌 머피 미헨 불출마 선언 대니얼 고 길 열리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니키 송가스 의원의 은퇴선언으로 열린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엘렌 머피 미헨 씨가 5일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니얼 고 보스톤 시장 비서실장은 공교롭게도 5일 오전 선거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엘렌 머피 미헨의 선언은 고 보스톤 시장 비서실장 및 기타 후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주립대 총장이자 전 연방하원의원인 마틴 미헨의 전 부인인 엘렌 미헨이 출마했을 경우 전 남편의 강력



불출마 선언한 엘렌 머피 미헨

한 선거대책팀과 정치적 자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혔었다.

미헨 씨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뮤니티 호스피탈과 병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나는 건강보험 제공자들과 병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돕고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미헨 씨의 말이다.

니키 송가스 의원은 해버힐에서 허드슨까지 이어지는 제 3의회지역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내년 재출마에 나서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어린이와 함께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예술 작품의 감상은 전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묘사를 꼼꼼히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어린이들은 그런 면에서 예술을 감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관람객이다. 엄숙한 분위기의 미술관도 알고 보면 아이들을 위한 편의를 여러 가지로 제공하고 있다. 야외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에 왕성한 에너지를 가진 아이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여 관찰력을 새롭게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마미포핀스(mommypoppins.com)가 소개한 어린 아이와 함께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다.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까?
대부분 미술관의 전시물들은 만져서는 안 되며 오로지 눈으로만 감상해야 하지만 현대 미술 전시관의 린데 패밀리 윙(Linde Family Wing)에 위치한 비드로 된 커튼 설치물은 예외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금빛 통로'(Passages: Golden)라는 제목의 작품에 아이를 데려다주자. 적어도 30분은 작품을 이리저리 탐색하며 재밌

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봄비는 전시장에서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사람이 없는 전시장으로 이동하자. 특별전엔 사람이 많이 몰리지만, 기존의 상설 전시관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몇몇 전시관은 카펫으로 된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이집트관, 미국 모더니즘관, 섬유 예술관을 추천한다.

연령별 방문 팁
4살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패밀리 아트 카드'를 방문해보자. '패밀리 아트 카드'에서는 퍼즐 맞추기, 신화 이야기 배우기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들어있는 토트백을 빌릴 수도 있어서 전시장을 돌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샤피로 패밀리 코트 야드(Shapiro Family Courtyard)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셀프 가이드 '아트 커넥션'을 이용해보자. 새, 벌레, 초콜릿과 같은 테마를 주제로 작품을 스스로 관람할 수 있게 제작된 '아트 커넥션'은

작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팁을 제안한다.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샤프 방문객 센터(Sharf Visitor Center)에서 받을 수 있다.

유아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4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플레이데이트'(Playdates)에 참여해보자. 매달 새로운 테마를 주제로 예술품 만들기, 스토리 타임 등의 활동이 제공된다. 첫째 주 월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미술관의 모든 전시장에서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음식과 음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헤미사이클 갤러리에 수유실이 있으며 기저귀 교환대는 전시장 내부 모든 화장실에 구비되어 있다.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
주소 :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운영시간: 토요일-화요일 10am-4:45pm, 수요일-금요일 10am-9:45pm
sun@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개관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오랜 염원이던 한인회관 및 문화관 개관식을 갖는다. 한인회는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로드아일랜드 크랜스턴의 파크애비뉴 소재 회관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한인들을 초청했다.

1981년 한인회관 건립기금 정관 설정으로 회관건립기금 모금을 시작한 이래 지난 36년동안 로드아일랜드 한인들의 노력으로 회관건물 구입을 일궈냈다.

조봉섭 한인회장은 "개관식에는 우리 한인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들과 이웃들도 초대하여 한인회를 소개하고 유대관계를 다

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부디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고 참석을 당부했다.

개관식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이메일로 (info@rikorean.org) 예약해야 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간단한 다과가 준비된다. 주차는 거리 주차가 가능하다.

개관식 이후 한인회관은 5:00PM 까지 방문할 수 있으며 30일 토요일에도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 계획이다.

개관식 : 9월 29일 금요일 11:00AM, 1140 Park Avenue, Cranston, RI 0291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산악회 정기산행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산악회는 9월 16일 토요일 뉴햄프셔 웹스터와 잭슨 마운틴으로 정기 산행을 떠난다.

ABC조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번 산행에서 AB조는 웹스터와 잭슨을 오르며 왕복 산행 거리는 6.2마일이다. C조는 잭슨마운틴만 오르며 왕복 산행 거리는 5.2마일이다. 산행 시간은 약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이다. 난이도는 3.5 보통수준이다.

배낭, 등산화착용, 방풍의, 장갑, 우의, 모자, 스틱, 식수,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모기 및 틱 등을 대비해 특히 벌레퇴치제(Deep Woods-spray)를 준비해야 한다.

집결지는 울스턴 공영주차장(오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산행에서는 조별로 올라가는 곳과 내려오는 곳이 다르다. 산행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9월 14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해야 참가가 가능하다. 신청시 A,B,C중 원하시는 조와, 집결지 선택(Allston or Exit 2) 차량운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연락 전화를 남겨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617-780-9588(김혁신)로 할 수 있다. 날씨 관계로 산행지 변경 및 취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해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새내기 특집

신입생들이 놓치지 말고 알아두어야 할 3가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보경 기자 = 올 가을 학기에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학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학생활을 마감하면서 선배들이 새내기 학생에게 이 점만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3가지를 모아 정리해보았다.

〈전공 수업과 동아리 선택〉

대학 생활 신입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자신과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일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 그만큼 전공선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그런 학생들에게 1학년때 교양수업을 주로 듣고 자신이 관심 있는 전공수업을 한두 개 들을 것을 추천한다. 전과, 편입, 복수전공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쉬운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학과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수업을 교양수업으로 듣는 대신 한 두 전공수업을 들으며 이 전공이 정말 자신과 잘 맞는지 계속 공부하고 싶은지 등의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교 시간표는 고등학교와 달리 각자 자신에게 맞춰 스스로 만드는 만큼 스스로의 시간관리능력과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평소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을 들어보며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대학생활 내 전공수업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동아리 선택이다. 학업뿐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을 한다면 수업에서 배우는 것 외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배울 수 있다. 동아리 내 다양한 학과의 선배와 동기를 만나

여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 시간표, 학점관리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학과생활과 적절히 조절하며 활동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은행계좌 개설〉

은행계좌 개설은 보스톤 생활의 출발점이다. 보스톤에 도착한 새내기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미 은행계좌 개설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스톤 은행은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시티즌스뱅크(Citizens Bank)다. 영어가 불편하고 한국어로 은행 계좌를 열고 싶은 경우, 올스톤에 있는 이스트보스톤세이빙뱅크(EBSB)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스톤에 있던 씨티은행(Citibank)은 작년 1월 전면 보스톤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행 계좌는 일반적으로 체크 어카운트(Checking Account)와 세이빙 어카운트(Saving Account)로 나누어져 있다. 체크 계좌는 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좌이다. 따라서 입출금 제한 없이 자유롭다. 체크 계좌를 개설한 후 데빗 카드(Debit card)가 발행되는데 이는 현금 직불카드라 생각하고 사용하면 된다. 세이빙 계좌는 개인의 돈을 저축해 놓는 계좌로 소액의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달에 6번 이하의 현금 인출이 제한됨으로 저축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개설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각종 수수료이다. 각 은행마다 수수료 명세서(Fee Schedule)가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챙겨 각종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초과인출을 한 경우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item fee)를 점검해야 한다. 초과인출수수료는 보통 건당 35달러로 적지 않은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월 수수료(monthly maintenance fee)또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한다. BOA의 체크 계좌인 경우, 만 24세 미만인 학생들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만 24세 이상인 학생들은 월 12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Citizens Bank의 체크 계좌 월 수수료는 25달러로 잔고에 25,000달러가 있을 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EBSB경우는 월 수수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속은행의 ATM이 아닌 타 은행 또는 일반 ATM을 이용할 시 양쪽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당 현금인출기 은행 또는 회사에서 일부 부과되고 추후 자신의 은행에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BOA는 건당 2.5달러, Citizens Bank는 건당 3달러가 부과되며, EBSB는 ATM수수료가 없다.

〈21세 이하 마리화나 합법 여부〉

지난 2016년 12월 매사추세츠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이 통과되면서 매사추세츠 주 내 마리화나 사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그 허용범위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21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며 청소년들을 포함한 21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불법이며, 마리화나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 약물 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차량 운전자 보조석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한국 형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죄도 한국에서 처벌되기 때문에 유학생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되었다더라도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해 불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게 되면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짧게는 1~2주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도 마리화나 흡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

kbk@bostonkorea.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15개 주 법무 장관, 드림 법안 폐지 반대 소송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 법무 장관도 동참
미국 내 80만 명, 매사추세츠 8천 명 혜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림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법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15개 주 법무 장관들이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법무 장관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

힐리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트럼프 대통령의 DACA 법안 폐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며 “우리는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이고 방향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인터뷰 후 몇 시간 뒤에 뉴욕 동부지구 연방 지방 법원에 소장 제출했다.

DACA 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DACA 법안은 청년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미국에 들어온 뒤 최소 5년 이상을 체류한 불법 체류자가 학교나 직장 다니는 경우 추방을 유예하는 임시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DACA 법안에 따라 임시 신분이 부여된 사람들은 ‘드리머(Dreamers)’라고 불리며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대신에 드리머들은 2년마다 워크 퍼밋을 갱신해야 한다.

현재 드리머로 분류되어 DACA 법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전체에서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DACA 법안이 시행된 2012년 이후 8천 명의 사람들이 드리머로 승인을 받았다.

힐리 장관은 “DACA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아거나 어린이일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다. 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살아간다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DACA 법안의 약속이었다”며 “대통령과 연방 법무 장관이 이 약속을 어제 찢어 버렸다. 소송을 통해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법안의 폐지를 발표했지만 당장 드리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6개월 동안 DACA를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의회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DACA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jsi@bostonkorea.com



지난 5일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매스 터파이크의 통행료를 없애자는 주민 투표 청원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유료 고속도로 무료화 청원, 법무부 거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내년 주민 투표를 위해 추진 중인 몇몇 법안들이 매사추세츠 주 법무부의 사전 승인 과정을 통과했다. 그러나 매스 터파이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자는 법안은 주 법무부의 승인 과정에서 거절 당했다.

올해 법무부에 접수된 주민 투표 법안 청원은 총 28건이었으며 이 중 21건이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의 승인 과정은 주민 투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접수된 법안들이 현행법, 헌법과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사한다.

법무부의 승인 과정을 통과한

법안들은 주민 투표에 상정되기 위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등록 유권자들로부터 수만 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 법무부는 터파이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는 것은 “유료 시설을 보상 없이 점유하는 것”이라며 거절 이유를 밝혔다.

내년 주민 투표를 위해 주 법무부의 승인 과정을 통과한 법안들 중에는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법안, 주 세일즈 택스를 인하하자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 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트럼프 드림법안 폐지, 수많은 젊은이들 추방위기

6개월 동안 유예, 의회가 법안 만들라 공 넘겨 매사추세츠 약 8천, 미전역 80만명 추방 위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부모의 손이 이끌려 미국에 입국한 80만여 명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5일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추방유예법안을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5일 준비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온정이 있는 사람들이며 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동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DACA)는 유아였을 때 부모를 따라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게 임시적인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 미 전역에서 80만명이 수혜를 받아 신분 및 워크퍼밋을 받았다.

국토안보부의 메모에 따르면 2018년 3월 5일 이전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들은 10월 5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2년 동안 갱신하게 된다. 그러나 3월 5일 이후에 만료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만료일에 신분을 잃게 된다.

미이민변호사협회의 뉴잉글랜드지회 그래픽 로마노프스키 회장은 다카(DACA)의 폐지는 대부분의 다카(DACA)수혜 청소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드리머들(Dream-ers)은 다른 대안이 없다. (다카 신청으로)이들의 정보는 완전하게 정부에 노출된 상태가 된다. 현재 정부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방명령이나 그들의 추방 절차를 시작하기가 수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로마노프스키

회장은 다카 수혜자들이 결코 영주권을 허용받은 것이 아니라 추방을 유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카 반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립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반대단체 이민법을 뒷받침연구센터 레지던트 연

구원인 앤드류 아서 씨는 "이는 커다란 권한 남용이다. 단지 국회만이 개인에게 이민혜택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트럼프의 법안 폐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보스톤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에서 마티월시 보스톤시장,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과 나란히 선 모라 힐리 MA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민주공화 양당의원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내 질문은 미국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에게 등을 돌리라는 것이다. 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정치를 벌이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힐리 장관은 다른 주의 법무장관들과 함께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주는 지난 5일 캘리포니아, 뉴욕, 뉴멕시코, 워싱턴 및 매사추세츠 등 5개 주에서 16개 주로 늘어난 상태다.



화요일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DACA 폐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힐리 MA법무장관과 협력할 것이며 트럼프와 세션스 법무장관의 지침을 보스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결코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박해다. 결코 행동을 잘못된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공화당원인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최근 이민 단속국으로부터 디테이너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경찰이 이 요청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 이민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던바 있지만 이번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주민들의 가정에 위해를 가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을 의회에 넘겨 3월 18일까지 DACA 법안을 만들도록 했기에 앞으로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에드워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심해서 초당적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잘못 건드렸다 트럼프 지지자도 반대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2세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기로 하자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다카는 불법 이민자 2세가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한인 1만 명을 포함해 미 전역에서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다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청년 불법체류 '드리머'에 대한 보호는 6개월 뒤인 내년 3월 5일 종료된다. 또 다음 달 5일까지 1회에 한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까지 공동 조사한 결과, 불법 체류 청년 이른바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얻기 전까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8%였다.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지만 시민의 지위까지 인정해줄 순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즉각 추방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불법이민자를 무조건 추방해선 안 된다는 여론은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고르게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의 84%, 무당파층의 74%, 공화당 지지자의 69%가 불법이민자들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밝힌 유권자의 3명 중 2명이 '드리머'들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했고, 26%만이 '다카' 폐지에 찬성하며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yjyj@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트럼프, 아베와 통화 때 한국 향한 불만 표시

일 언론, 북에 대화 구걸 언급...일본이 중재 주장
청, 한반도 안보 국제공조 훼손한 보도 유감 표명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 때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을 표시했었다는 주장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일본 후지TV는 7일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한 지난달 29일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北海)도 상공을 지나간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대북 군사적 압력의 필요성을 "누군가

(한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에 따라 다음날(8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이라 게 후지TV의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을 협의한 뒤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후지TV는 "(대북) 군사적 압력에 근거주춤한 태도를 보였던 한국과 거기에 애가 탔던 미국 사이에서 일본이 중재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후지TV 보도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일관된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폐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제재·압박을 지속해야 하고, 북한이 먼저 스스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모든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 및 전화통화에서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회담 이후 발표된 각국 브리핑에도 정상들 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돼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헤일리, 이란 핵협상 그냥 두면 이란도 북한 된다

협상 만료까지 미국 쓸 핵탄두 개발할 것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이란 핵협상을 현대대로 유지하면 결국 이란도 북한처럼 미국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소재 보수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강연에서 2015년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이 맺은 핵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0월 중순 의회에 이란 핵합의 준수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헤일리 대사는 이를 두고 "(핵합의를) 무효화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효화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안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는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무엇인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협정에 참여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 국무부는 이란이 JCPOA를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합격점을 매겼지만 헤일리 대사 등 트럼프 행정부 몇몇 인사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으며 핵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줄곧 이란 핵협상을 '재앙적'이라고 평가하며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강연에서 JCPOA가 10년 내 만료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날엔 이란군도 미국에 핵탄두를 보내는 미사일 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바로 그 기술처럼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lchung@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GRAND 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유가 상승...미 정유공장 가동 재개로 유가 상승 전망 ↑

허리케인 어마 접근으로 신중한 태도 유지

(뉴욕 로이터=뉴스1) 이창규 기자 =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높은 글로벌 정유 마진과 미국 멕시코만 정유공장들의 가동 재개가 허리케인 하비 이후 하락했던 유가의 상승 전망을 높였다. 다만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말 플로리다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서부텍사스원유(WTI) 10월물은 50센트, 1% 상승한 배럴당 49.16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9일 이후 최고치다. 브렌트유 11월물은 82센트, 1.5% 오른 배럴당 54.20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 4월 18일 이후 최고치다.

어게인 캐피탈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모든 사람들이 멕시코만에 타격을 주는 태풍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비로 인해 폐쇄됐던 많은 정유업체들과 송유관, 원유 수출항이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 정유업체 필립

스66은 텍사스 정유공장 스위니의 가동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이달 중순쯤 생산이 완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킬더프 파트너는 "정유공장이 가동을 재개하면서 멕시코만의 공급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멕시코만 연안과 카리브해의 에너지 인프라시설이 허리케인 어마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BP는 불필요한 인력을 멕시코만의 원유시추설비인 썬더호스에서 대피시켰다. 벅아이 파트너스는 푸에르토리코의 야부코 원유 수출항을 폐쇄했고, 플로리다와 바하마의 다른 원유 수출항 두 곳에서도 어마에 대비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원유 수출항과 유통업체들도 허리케인 어마를 주시하고 있다. 허리케인 어마는 플로리다의 연료 선적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톱슨로이터에이콘의 자료에 따르면, 허리케인 어마의 경로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과 쿠바의 정유공장의 원유 처리량은 일평균 약 25만 배럴이다.

이날 미국석유협회(API)의 주간 원유재고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음 날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주간 원유재고가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미국의 원유재고가 400만 배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 업계의 장기적 전망은 공급은 충분하고 유가는 낮을 것이다. 리비아와 중동, 북미 지역에서의 산유량이 여전히 많다.

게다가 리비아의 산유량이 일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장기적 유가 약세 전망을 지지했다.

yellowapollo@news1.kr



디지털에 밀린 레고, 구조조정... 10년래 최악 매출

전체 직원 8% 1400명 해고...경영진도 교체

(서울=뉴스1) 정해민 기자 = 세계 어린이를 사로잡았던 덴마크의 완구업체, 레고가 인력을 구조조정한다. 레고는 인력 1400명, 전체 직원의 8%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고는 10년 만에 최악의 매출 부진으로 허덕이는 상황이다.

5일(현지시간) 조르겐 빅 크누드스톱 회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우리는 (성장) 모멘텀과 생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이 점점 복잡해졌다. 이는 결국 침체 혹은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년 동안 레고 직원 수는 두 배 늘어 1만8200명에 달한다. 이날 레고는 상반기 매출이 5% 줄어든 149억 크로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레고는 2003~2004년 기록적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크누드스톱 회장이 이끈 혁신으로 세계 장난감 업체 중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할 만큼 회복했다. 레고

의 매출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레고는 외면당하고 있다. 레고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 라인 '배트맨' 게임 세트의 매출도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레고 경영진 교체도 전격 진행 중이다. 덴마크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가문이 지배하는 레고는 지난 1월 1일부로 크누드스톱의 후임 임시 최고경영자(CEO)로 발리 파다를 선임했다.

레고는 10월 1일부로 파다가 물러나고 다시 창업가문의 닐스 크리스티안센이 정식 CEO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크누드스톱 회장은 "조직에 너무 많은 충위를 두고 기능을 중첩, 회사가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유럽사법재판소, 인텔 반독점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인텔의 반독점법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CJ는 6일(현지시간) 하급법원인 유럽 일반법원에 인텔의 항소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CJ는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법원에 회부해 리베이트가 경쟁을 제

한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인텔이 AMD를 비롯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자사 컴퓨터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사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0억6000만유로(1조4000억원)를 부과했다.

인텔은 이후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4년 패소했다.

이 소송은 유럽법원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것으로, 결과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유럽에서 재판을 받은 구글·애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6월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유로(약 3조2000억원)를 부과 받은 바 있다.

soho0901@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것만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부담 최소화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yinsurancema.com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불판

바베큐&라운지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ALL YOU CAN EAT:
\$39.95

안창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등심, 곱창, 새우, 오징어, 오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싱싱한 회 | 히바치 | 바베큐 안창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CRG REALTY GROUP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보기드문 전망좋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성주 주민들의 절규... 촛불정부가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성주=뉴스1) 정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이것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반입에 반발하고 있는 성주·김천 주민과 사드반대단체들이 7일 경북 성주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반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원망했다.

주민과 사드반대단체 등 400여명은 전날 오후부터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배치에 반발하며 밤샘 저지에 나서 경찰과 대치·충돌했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이날 오전 8시쯤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장비와 물자를 실

은 차량들이 남김천IC를 거쳐 성주 소성리 마을 앞을 통과해 사드 기지로 들어가면서 사드 반입은 일단락됐다.

원불교 교무인 강현욱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5개월여 동안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숙식했던 지킴이들의 캠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잔해만 널려있다"며 참담함을 전했다.

그는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바꾼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유린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맹비난했다.

임순분 성주 소성리 마을 부녀회장은 "어젯밤은 정말로 길고 참담한 밤

이었다"며 울먹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사드 장비 4기가 반입된 것을 숨겼다는 사실에 격노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을 믿었는데, 이제는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또 "'박근혜 사드는 나쁜 사드이고, 문재인 사드는 좋은 사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나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은 문 정부를 향해 "파렴치한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4월26일 사드를 불법 반입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가 배치된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이 사드 배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곳 주민들은 전쟁보다 가 철거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사드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사드 daegurain@news1.kr

사드 추가배치에 중국 격한 반응... 경제계 깊은 시름

유통·관광·자동차업계, 추가보복 가능성 전전긍긍
중 언론, 사드는 악성종양...한국 협력사 죽이기 노골화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북한의 핵질주에 대응해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배치를 실천에 옮기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반년 간 유통, 자동차, 관광 업계 등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번 사드 추가배치로 중국 정부의 보복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중재와 지원을 호소해왔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다보니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 잔여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완료한 정부는 7일 "중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로 기존 2기와 함께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되면서 중국 정부는 거세게 반발하며 추가보복을 예고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날 "사드도 북한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평온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혼란시키는 악성종양"이라면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은 전략적 자주성을 잃고 북핵 위기와 대국 간 힘겨루기 속에서 개구리밥 신세가 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7월 중국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사드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받은 김장수 주중대사는 이날 또 다시 초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인과의 접촉시 불필요한 논쟁 등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고조되는 국가간 정치·외교적 갈등에 기업들은 좌절감마저 느끼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드배치로 경제관계나 민간 교류가 경제 외적인 이유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사드 관련 피해가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영업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롯데마트는 올해 피해액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지 진출한 자동차업체와 건설사 등도 노골적인 보복에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기아차 판매가 급

감한 가운데 현지 중국 합작사가 사드 국면을 계기로 국내 협력업체 내치기에 나서고 있어 향후 관계가 복원돼도 피해복구가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환구시보 등 현지 관영매체에서는 현대차가 판매가 급감하는 와중에서도 베이징현대차를 독단적으로 경영하며 자기계열사 행거기에 바쁘다는 요지의 비난도 나왔다. 보도에는 '합자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언급까지 곁들여졌다.

현대차는 근거없는 악의적 보도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사드 추가 배치가 이뤄진 날 이같은 보도가 나온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에 베이징 1,2,3공장, 창저우 4공장, 충칭 5공장을 갖고 있다. 이중 최근 완공된 충칭 5공장은 가동에 들어갔지만 1~4공장은 셧다운 상태다. 판매가 급감하며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드 이슈가 터진 이후 백방으로 뛰어도 기업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며 "사드 추가배치 소식에 한숨만 쉴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에 치중됐던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협력업체와 국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라며 "뾰족한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도 못한 문 대통령-시진핑, 사드 배치로 관계 벌어지나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다시금 관계가 멀어지는 분위기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압박 추진 방침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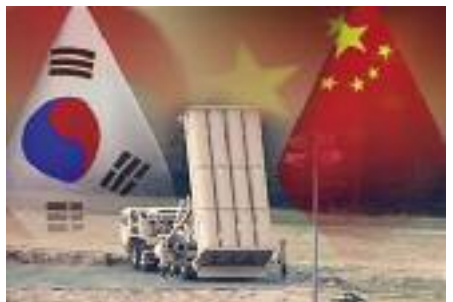
우리 국방부는 7일 사드 발사대 4기 및 잔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전날(6일)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고 같은 날 경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유관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설비 철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양국 간 사드를 둘러싼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때마다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했고, 결국 한중수교 25주년 행사는 지난달 24일에는 양국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형식적인 메시지만을 주고 받으면서 마무리됐다.

특히 이같은 사드 여파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및 압박기조를 현실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잇단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원유공급을 중단해달라고 각국을 설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가까운 시 주석에게도 이같은 기조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려 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에 7일 현재까지 답신을 주지 않고 있다.

cho11757@news1.kr



트럼프, 한국에 수십억 달러 무기 판매 용의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

히지 않았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과 2016년 사이 한국에 거의 5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했다.

이 기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4번째 순으로 미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jjtan@news1.kr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SEP. 8 - SEP. 14,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SWEET POTATO PIZZA

Go lighter on the dough, go crazy with toppings! Load your pizza with sweet and healthy choices!

요즘 대세는 바로 떠먹는 피자! 달콤한 고구마와 고소한 치즈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환상의 피자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 Stem Tomato 스템 토마토** \$0.99 lb
- Nagaimo 일본 마** \$5.99 lb
- Kabocha 단호박** \$0.88 lb
- Packed Garlic 팩 마늘** 2\$3 pkg./for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 사과 프리미엄** \$1.49 lb
- NATURE'S Tofu 자연담은 두부 Soft/Firm/Saken - 14oz/pkg** \$0.99
-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79 lb **NEW CROP**
- Lago Grape 라고 포도 Half Box** \$14.99
- Hami Melon 하미 멜론** \$0.99 lb
- Gobo 무영** \$1.9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oneless Pork Loin for Roast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
-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닭서채** \$1.99 lb
-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홍두깨** \$7.99 lb
- Pork Tenderloin Whole 돼지 안심** \$3.99 lb
- Beef Halal Meat 소사태** \$7.99 lb
- Marinated Tenderiz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안심 육갈스테이크** \$5.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6.99 lb (FRI/SAT/SUN ONLY 8/9/10 ONLY)
- TONGTONGBAY Cooked Cockle Clam (Half Shell) 통통배 자숙 반코덕** \$3.99 lb (FRI/SAT/SUN ONLY 8/9/10 ONLY)
- Half-Shell Mussels 반칸 홍합 1.5 lb/pkg** \$6.99
- Yellow Tail 수협 냉동 방어** \$1.99 lb
- TONGTONGBAY Raw Peeled Shrimp 통통배 완새우 31-40 s/12oz - pkg** \$5.99
- Live Jeju Olive Flounder 제주산 활갱어** \$14.99 lb (FRI/SAT/SUN ONLY 8/9/10 ONLY)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Kyoung Gi Medium Grain Rice 15 lb** \$9.99
- HORNBEL FOODS Spam** 2\$5
- CJ Cooked White Rice 12oz x 12oz/box** \$9.99
- HUMOREUM Premi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밥도둑 도제하침** \$2.99

H MART PRESENTS THAI FOOD FESTIVAL

SEP. 15TH - 26TH AT H MART BURLINGTON STORE

대형의 향, 미국에서 온 맛있는 음식들을 드셔보세요! H마트와 함께하는 태국음식 페스티벌, 놓치지 마세요!

JOIN H MART AND HELP PEOPLE AFFECTED BY HURRICANE HARVEY

H MART + YOU = LOVE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에 관공구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H마트와 함께하는 레드크로스기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3.99
- CJ DASSIDA Beef Flavor Soup Stock** \$9.99
- FOODBELL Vermicelli 푸드벨 궁중 면** 2\$5
- OVERMUN Crab Sticks 대문선 게맛살** \$1.49
- SOUP Stock for Cold Noodles 양스레 찬저 냉면 육수** \$3.99
- HUMOREUM Korean Style Premium Cold Noodles 해오름 냉장 냉면** \$3.99
- PULMUON Vietnam Pho Noodle Vietnamianies** \$4.99
- S&B Golden Curry** \$2.99
- OnSUNG Veg Chips (25Packs) 오성익스 빈칩 (25개)** \$9.99
- OTON Green Tea Matcha Dosa Pe 오톤 그린 티 매치아 도사피** \$3.99
- HUMOREUM Soy Milk 해오름 두유** \$9.99
-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14.99
- Lace Gifting Socks 레이스 넋신** \$1.99
- Dehumidifier 일문선 대량용 습기제거기** \$2.99
- KOMAX Plastic Tea Pot 코맥 플라스틱 티 포트** \$9.99

During the selling periods, there may be shortages in certain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BURLINGTON STORE: 43 W. Essex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20 / STORE HOURS: Sun - Thu 9am - 7pm / Fri - Sat 9am - 10pm

한국이 공격받으면 세계 전자기기 생산 올스톱

CNBC 보도...애널리스트들 기술산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이유 분석 세계 메모리칩 시장 64% · LCD 40% 점유...반도체 공급 즉각 중단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한반도 긴장이 고조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혹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방송 CNBC는 6일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이 세계 기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7%를 점유하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64%를 차지하고 있다. 김수겸 한국 IDC 부사장은 "한국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세계 주요 반도체 공급은 즉각 중단되고 모든 전자기기 생산역시 멈출 것이다"라고 밝혔다.

IT 공급 체인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이 세계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 세계 4위 전자기기 생산국이라고 밝혔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개리스 리더와 크리스탈 탄은 "만일 전쟁으로 한국의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으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차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데에는 약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전자 분야에서 중간재 생산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고려하면, (전쟁으로) 상실한 생산 능력은

세계 어느 국가도 충분히 메꾸지 못할 것이다. 한국 밖에 있는 기업 다수들도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CNBC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이 한국 교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미국과의 FTA 분쟁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동시에 한미 FTA도 맹공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미국을 파괴하는 끔찍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하늘에서 바라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

외신은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FTA 폐지 논의를 미뤄두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씨티는 한미 FTA가 폐지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씨티는 한국

산업연구원(KIET) 연구를 인용해 한미 FTA가 폐지된다면 한국산 제조상품에 붙는 실효 관세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hemingway@news1.kr

미 국가정보국, 북한 고체 ICBM 개발도달...핵탄두 표준화 이뤄

마커스 갈로스카스 북한정보담당관, 서울 안보대화 참석

(서울=뉴스1) 조규희, 문대현 기자 = 북한이 고체 추진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에 도달했으며 핵탄두 표준화를 이뤘다는 미국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북한정보담당관은 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세션에서 "북한이 고

체 추진 ICBM 개발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갈로스카스 북한정보담당관은 북한이 지난 4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기들을 언급하며 "이미 북한은 단거리 고체 추진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동식 발사차량도 선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해왔다"며 "단거리미사일부터 중거리미사

일, ICBM까지 계속 확장해왔다"고 덧붙였다.

갈로스카스 북한정보담당관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계속 수출해 왔다"며 "관련 기자재를 이란과 시리아에 수출한 것을 봤을 때 북한은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선 "최근 2년 동안 세번의 핵실험을 자행했으며 지난해 9월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탄두의 표준화를 이뤘다는 것을 보였으며 이번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탄도미사일 탑재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갈로스카스 북한정보담당관은 "김정은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다. 2012년도에 권력을 잡고 독재자 이미지를 갖춰가며 숙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누가 김정은을 대체할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은 본인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며 "모든 의사결정을 김정은이 진행하며 이는 전략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갈로스카스 북한정보담당관은 이같은 내용을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playingio@news1.kr



한민구 전 국방장관(오른쪽)이 2016년 11월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1년 연장

(서울=경향신문) 박성진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25일 양국 간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어느 한쪽도 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지소미아는 자동연장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그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1년간 더 운용함으로써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작년 11월 23일 양국이 서명해 바로 발표했다. 효력이 끝나는 90일 전에 한·일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그 기한이 24일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일본과 군사적인 연대를 강화하는데 반발하는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해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협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longriver@kyunghyang.com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명령서에 "승인했다. 9월 3일 낮 12시(한국시간 낮 12시30분)에 단행한다" 라고 썼다고 노동신문이 4일 보도했다.(노동신문)

미 전문가, 북한 다음 도발은 핵탄두 실은 SLBM일듯

(서울=뉴스1) 윤지연 기자 =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핵을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제까지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따로 시험해왔다. 깊은 지하에서 핵실험을 이행하고 미사일은 의도적으로 고각도로 쏘아올려 발사했다. 그러나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북한의 다음 차례 추가 도발은 핵과 미사일을 동시에 시험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6일 NPR에 따르면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도발은 1962년 미국의 '군함새'(frigate bird) 작전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압도적 위협을 무릅쓰고 지상 핵실험을 할 것이라 전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관계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 맞서 중국이 1964년 지하 핵실험

을 감행하고 2년 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지상 핵실험을 진행했던 배경과 현재 북한이 놓인 처지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액트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것은 북한이 (군사)능력을 보여줄 최종적 방법"이라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jw@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p>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p>	<p>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NEW LISTINGS				LISTINGS	
<p>Residential</p> <p>Single Family</p> <p>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p>	<p>Residential</p> <p>Condo</p> <p>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p>	<p>Commercial</p> <p>살롱 & 스파</p> <p>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p>	<p>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p> <p>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p> <p>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p> <p>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p> <p>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p> <p>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p> <p>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p> <p>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p> <p>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p> <p>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p> <p>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p> <p>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p> <p>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p> <p>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p> <p>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p> <p>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p> <p>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p> <p>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p> <p>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일식당</p> <p>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컨비니언스 스토어</p> <p>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비즈니스 콘도</p> <p>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한국식당</p> <p>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세탁소</p> <p>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공영방송 파업 놓고 방통위 내홍 방송장악 vs 정상화

4기 방통위, 7일 회의서 공영방송 파업사태 첫 논의 야추천, 공영방송 장악...위원장, 시각차 분명 인정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경영진 퇴진과 공정방송 확립을 요구하며 KBS, MBC 양대 공영방송이 총파업 중인 가운데 7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이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지만 5명의 상임위원 사이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날을 세운 반면 여당 및 정부추천 인사들은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맞받아쳤다.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을 받은 김석진 상임위원은 "현재 KBS와 MBC가 동시파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방송을 못보고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우리 방통위는 신중하게 이 사태에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 기자 출신

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았다. 2016년 허원제 전 부위원장의 총선 출마로 비어있는 자리에 선임돼 3기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역임한 이후 4기에서 연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며칠 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80여명이 방통위를 찾아서 항의하고 간 일도 있다"면서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정권의 방송장악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진 위원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방송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MBC의 부당행위 의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전방위적 압박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허욱 부

위원장의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김석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어느 한쪽 일방의 주장과 입장만 반영하는 듯하다는 비판이 나오면 안될 것"이라며 "양쪽 입장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고 균형있게 들여다볼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추천을 받은 표철수 상임위원 역시 "방통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지만 절차상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들여다보고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김석진 상임위원 말대로 위원 개개인의 입장이 아닌 총체적인 방통위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야당 추천 인사들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지명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은 "정치권 일부와 언론에서 방송의 정상화 노력을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에 따라서 정상화가 어느 것인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지난 10년간 MBC와 KBS의 공정성이 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상적이었는데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서는 결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총파업 사태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공영방송 파업으로 방송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데 여기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일부는 방송장악으로 보고 다른 쪽은 방송의

정상화와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총파업 사태를 실패파악하고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겠다"며 "조사 이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상임위원 여러분과 상의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sho218@news1.kr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추석 황금연휴 최대 10일

정부, 국가교육회의 설치안 등 12건 안건 심의·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열흘간의 황금 추석연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즉석안건 1건을 비롯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와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결로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새 정부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내년 발표할 수능 개편안과 대입정책 개혁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고교학점제 실현방

안 등을 두루 다룰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으로 "공공비축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확기 쌀값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의 건립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는 치매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치매정책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정부는 경찰청(21억2900만원)·국방부(8억9900만원)·인사처(21억4900만원)에서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증원하는 국가공무원 선발비용으로 총 51억7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예산 24억57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parksj@news1.kr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진행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모습

미, 한미FTA 폐기 논의 중단... 정부, 차분히 상황 주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6일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를 당분간 중단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7일 현지 보도 후 뉴스1과 통화에서 "늘 해오던 대로 차분히 대응하면서 미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를 폐기가 아닌 개정 협상으로 진행한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전날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

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당시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FTA 발효 이후 효과 분석부터 먼저라는 종전 입장과 변함없다"며 "당당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6일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같은 날 관계자를 인용해 미 의회와 재계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폐기 논의를 뒤로 미뤄두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jepoo@news1.kr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국정원 댓글공작 양지회 간부 2명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외곽팀장 활동 및 활동 흔적 삭제지시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이유지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관계자 2명이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현직 간부 박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12분쯤 법원에 도착한 박씨는 '댓글작성 누구 지시 받고 한건가' '국정원에 돈 얼마 받았나' '증거인물은 왜 한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

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노씨 역시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지회 간부 박모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8월22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외곽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 양지회 간부들이다. 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양지회의 연간 예산집행을 관리해온 인물로 검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요청과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론조작 활동 흔적을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양지회 전·현직 회장도 불러 조사한 바 있



국정원 댓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간부이자 전 국정원 직원 박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뒷선 지시 여부와 예산집행 등 댓글부대 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ilverpaper@news1.kr

소년 흉악범 선처 없앤다...소년법 등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부산·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과 같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연령 조정, 사형 및 무기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과를 남기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고, 2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도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2회 이상의 특정강력범죄 또는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도록 해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소년법의 가석방 요건 또한 현행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에서 각각 8년, 4년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도 전과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 특수강도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현행 유기징역 최대 20년을 최대 30년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범죄를 호풍화하고 있는 심각성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여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관 증원 및 예산확대, 학교주변 폭력 감시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kb@news1.kr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

부산 피투성이 여중생 2개월 전에도 폭행당했다

고소장 접수한 피해자 출석안해 조사 제대로 안돼 두번째 폭행 경찰 고소따른 보복 여부 추가 수사

(부산·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후배를 둔 기로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든 여중생이 2개월 전에도 같은 피해 여중생을 때려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피해자가 조사에 참석하지 않아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2개월 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폭행사건이 있었다"며 "이번 폭행사건이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보복 행위인지 여부는 관련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쯤 피해자 A양(14)은 다른학교 선배인 B양(14)과 C양(14)을 포함한 4명으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다음날인 6월 30일 피해 여중생은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인 A양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양을 직접 때렸던 가해학생 2명은 지난 1

일 오후 8시 30분쯤 다른 일행을 데리고 또다시 폭행을 휘둘렀다.

이들은 A양을 급속제조공장 인근 골목안으로 데려가 1시간 30여분 동안 철골자재와 의자 등으로 내리치거나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때 현장에 있었던 일행 6명 가운데 A양을 함께 때린 가해 여중생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2개월 전 A양이 가해 여중생의 남자친구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중이다.

사상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일행 가운데 폭행을 가한 여중생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발적으로 피해 여중생을 때린건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억지로 가담한 건지 면밀히 조사해 형사입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에는 가해 여중생 B양이 피가 온몸에 흥건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A양의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choah4586@news1.kr



피의자 A양과 B양이 후배를 때린 뒤 사진을 찍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 내용. 이 장면은 SNS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SNS 캡처)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보스톤한미예술협회

THE 5TH
KCSB
ANNUAL
EXHIBITION

SEPTEMBER 23 - OCTOBER 7, 2017

OPENING RECEPTION :
SATURDAY, SEPTEMBER 23, 2 - 4pm

LEXINGTON ARTS & CRAFTS SOCIETY
13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특별전

In celebration of
**Dong-Ju Yun's
Centennial
Anniversary**

- Wonjae Cha 정원재
- Miae Cho 조미애
- Insun Cho 조인선
- David Christopher
- Hae Kyung Choi 최혜경
- Sunhee Hur 허선희
- Youngsheen Jhe 한영선
- Teresa Kang 강혜경
- Heejung Kim 김희정
- Jaek Lee 이재욱
- Yong Suk Lee 김영숙
- Taikyu Lim 임대균
- Catherine Byun Min 변순옥
- Elinoh Oh 오지현
- Anna Rejoyce 박혜영
- Young Kim Shin 김영아
- Young J. Shin 신영
- Soo Rye Yoo 유수례



다니엘/요한계시록 성경세미나

"미래를 아는 특권"

2017년 보스톤 한인들을 위한 성경 예언 연구 세미나

강사 : 박영호 목사
광야소리제작원 원장



매일의 편지
일 역사의 중심은 과연 있는가?
월 하늘은 땅을 알고있다
화. 지구촌 최후의 대제국은 어디인가
수. 미국의 선택
목. 양의 나라가 동의 나라로 가다
금. 세계 단일 정부는 인류의 희망인가?
토.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외침

날짜 : 2017년 10월 29일(일) ~ 11월 4일(토)

시간 : 오후 7시 30분 / 마지막 날(오전 11시)

장소 : Crowne Plaza Boston - Woburn, 15 Middlesex Canal Park Dr, Woburn, MA 01801

주최 : 보스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문의 전화 : (317) 374-4786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Asking: \$1,529,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 Clara Paik



Just Listed: Condominium
26 Broad Street #101, Marlborough, MA
Asking: \$35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31 Arlington Road # 5, Woburn, MA
Rental Price: \$ 1,850/ mo
Listing Agent(s):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 BR: 1 BA: 2
273 Commonwealth #3, Boston, MA
Rental Price: \$7,000 /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Just Listed: Rental | BR: 2 BA: 2
295 Salem Street #29, Woburn,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Al Magurn
508.733.2949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33 Winter Street, Belmont, MA
Asking Price: \$949,000
Listing Agent(s): David Oliveri



Just Listed: Condominium
111 Brigham #1D, Hudson, MA
Asking Price: \$272,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666 Mass Ave #36, Boston, MA
Rental Price: \$1,915/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41 Payson Road #1, Belmont, MA
Rental Price: \$2,70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216 Rindge Ave #4, Cambridge,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Ping Bai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00 Station Landing #1005, Medford, MA
Rental Price: \$2,35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ianna Johnson-King
336.392.7838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다른 사람들은 패트리어츠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시즌 수퍼볼에서 극적인 우승을 거둔 이후로, 그리고 오프시즌 동안 스타 선수들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패트리어츠의 이름은 NFL 전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2017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다. 시즌 개막에 앞서 지난 몇 개월 동안 NFL 관계자들에게 오르내렸던 패트리어츠와 관련된 인터뷰들을 살펴보자.

Jarvis Landry (돌핀스 선수, 4월 12일)

2017년에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전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쟁 상대를 대할 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나는 패트리어츠 팀에 존경심을 갖고 있고, 탐 브래디를 무한히 존경한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더 이상 큰 형님이 아니다.

패트리어츠에 전승을 거둘 것이라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담 게이츠 감독 때문이다. 게이츠 감독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켜다. 지난 16년 동안 패트리어츠가 14번 지구 우승을 차지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걸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

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상대에게 신경을 쓴다. 나는 변화의 일부이고 싶고,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Shannon Sharpe (팩스 스포츠 해설가, 4월 13일)

패트리어츠가 더 이상 큰 형님이 아니라는 인터뷰에 대해:

패트리어츠는 당연히 큰 형님이 아니다. 패트리어츠는 큰 아버지다. (돌핀스의 큰 아버지일 뿐 아니라) 리그 전체의 큰 아버지다.

Bill Polian (ESPN 해설가, 5월 10일)

패트리어츠가 좋은 팀인가에 대해:

탐 브래디는 지난 수퍼볼 경기에서 4쿼터가 시작할 때까지도 지고 있었다. 패트리어츠는 훌륭한 팀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팀은 아니다. 패트리어츠는 천하무적이 아니다. 패트리어츠는 감독에 의해서 상당히 잘 조직되고 잘 훈련받은 팀이다. 그리고 브래디가 영원히 풋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브래디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징후를 수 차례 보였다.

Ryan Shazier (스틸러스 선수, 6월



패트리어츠가 7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7주간의 2017 NFL 정규시즌에 돌입한다

15일)

패트리어츠라는 장애물에 대해: 보기에 따라서, 모든 NFL 팀에게 패트리어츠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패트리어츠는 훌륭한 팀이고, 뛰어난 감독이 있고, 언제나 이기는 방법을 찾는다. 패트리어츠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우리는 패트리어츠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패트리어츠와 맞

붙게 될 때,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퍼볼까지 우승할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이 장애물(패트리어츠)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우리는 매일 경쟁하고, 매일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Mike Evans (뉴캐너스 선수, 6월 26일) - 탐 브래디의 미래에 대해:

내 생각에 브래디는 최소한 5년은 더 풋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래디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나는 페이튼 매닝의 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싫다. 그렇지만 나는 현실을 알고 있다. 브래디가 최고의 선수다.

jsi@bostonkorea.com

추신수, 애틀랜타와의 DH에서 2루타 추가...김현수 무안타

(서울=뉴스1) 이재상, 맹선호 기자 =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더블헤더에서 2루타 1개를 추가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김현수(29)는 무안타로 침묵했고,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출전하지 않았다.

추신수는 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선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더블헤더 1,2차전에 모두 출전, 6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1차전에서 2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2차전에서는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 대타로 나왔지만 내야 땅볼에 그쳤다.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63을 유지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 추신수는 초반 고전했다.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3회에도 중견수 플라이, 4회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기다리던 안타는 6회에 나왔다. 6회초 무사 2루의 득점권 기회에서 애틀랜타 맷 위슬러의 공을 받아쳐 좌익선상 2루타를 터트렸다. 이에 2루 주자 달라이노 드실즈는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안타와 카를로스 고메스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때 득점에

도 성공했다.

추신수는 8회 무사 1루에서 잘 맞은 타구가 유격수 라인드라이브로 잡혔고, 8회 수비를 앞두고 교체됐다. 텍사스는 1차전에서 12-8로 승리했다.

2차전을 벤치에서 시작한 추신수는 4-5로 뒤지던 8회초 2사 1루에서 대타로 나섰다. 2루 땅볼에 그쳤다.

2차전 패배로 3연승을 마감한 텍사스는 70승69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3위를 마크했다. 2연패에서 탈출한 애틀랜타는 61승77패(내셔널리그 동부지구 3위)가 됐다.

최근 선발 출전 기회가 늘어난 김현수는 아쉬운 하루가 됐다. 뉴욕 메츠 원정 경기에 5번 우익수에 이름을 올리며 중심타자로 나왔지만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필라델피아가 3-6으로 밀리던 6회말 1사 1루에서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됐고, 강우콜드 패가 선언됐다. 무안타에 그친 김현수의 타율은 0.234에서 0.231로 소폭 하락했다.

김현수는 1회초 2사 1,3루의 득점 찬스에 첫 타석에 나섰다. 우익수 뜬공에 그쳤고, 4회에는 좌익수 플라이로 돌아섰다.

3-6으로 추격하던 6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장한 김현수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골랐다. 김현수가 이어간 찬스는 후속타

자의 삼진으로 끝났다. 이후 6회말이 시작됐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됐고, 그대로 필라델피아가 패했다.

샌디에이고 원정을 치른 오승환은 세이브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으면서, 4경기 연속 결장했다. 세인트루이스는 3-1로 승리를 거두고 72승67패를 기록했다.

0-1로 끌려가던 세인트루이스는 7회 무사 1루에서 스티브 피스코티가 역전 투런포를 터트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8회 무사 1,3루

에서도 해리슨 베이더의 희생플라이로 3-1을 만들었다.

2점 차 리드 상황에서 오승환의 등판이 예상됐지만 마이크 매서니 감독의 선택은 좌완 타일러 라이언스였다. 오승환은 불펜에서 몸을 풀었지만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라이언스가 1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alexexi@news1.kr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5)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LISTINGS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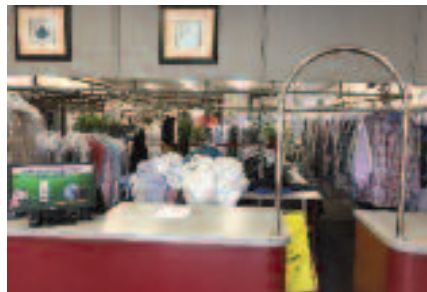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합한 4 B/R, 2 1/2 Bath
ASKING \$640,000

LISTINGS



새 바람 Waltham, 6 B/R, 3 Bath
Two Family House, 좋은 투자용 주택
ASKING \$798,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60,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70,000



Nail salon in Dedham
ASKING \$3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ouble-Lu Part of Christ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연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리와 기쁨의 배너라 (딤후 3:15)
담당목사: 우시환

주일예배 / 오후 9:00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치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 7:30 | LIFE 모듬 / 주일 4:00

335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담당목사: 박일중 목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8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2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2017년 가을학기 개강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NORTH BOSTON KOREAN SCHOOL

북부보스턴 한국학교가 새 교사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합니다!

저희 북부보스턴 한국학교는 개교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소그룹 형식의 반과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3-4살 어린 학생들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SAT2 Korean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외국인반, 컴퓨터, 태권도, 사물놀이, 붓글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아이들의 자율과 효율을 중시하여, 3교시엔 미술, 음악 그리고 한국 문화반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희 북부보스턴 한국학교를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Korean American이란 자긍심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기일정: 2017.9.16-2018.1.20

수업시간: 9:30am-12:30pm (매주 토요일)

장소: 북부보스턴 한국학교(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개강일자: 2017.9.16

등록비: 2017.9.9까지 등록시

Registration Tuition: \$290 for one child, \$480 for two child, \$580 for three child

2017.9.9이후 등록시

Registration Tuition: \$330 for one child, \$520 for two child, \$620 for three child

등록기간: 2017.8.14-2017.9.9

홈페이지: <http://www.nbkschool.com>

등록문의: 김주연 교장 (Tel: 617.888.3404, Email: nbkoreanschool@gmail.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Chelmsford, MA 세탁소 ^{8/25}
운전해 주실 분 (1PM - 6PM, 월 - 토)
T. 603-401-0113

Weston MA 세탁소 카운터 구함. ^{8/25}
수, 금, 토 풀타임/파트타임.
(시간 조정 가능) T. 603-401-0113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렉싱턴 소재 한식/일식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실 분.
T. 781-860-0171 (Kay)

True World Foods

스시 레스토랑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풀타임 영업직원 구함.

한국어와 영어 모두 가능.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 사무실 업무에도 능숙.
식당업 또는 식품도매업에 익숙.
월 \$3,500 기타 혜택 제공 가능.

이력서 보낼 곳:
david-st@trueworldfoods.com

도우미 구함

FirstLight HomeCare of West Suburban Boston

한국인 노인분 대상 일상생활 도우미 파트타임 일하실 분 구함

영어 가능.
CNA / HHA 소유자 선호.

T.(Wendy) 781-559-0220

로렌스 지역 일식 식당
소유자 은퇴로 좋은 조건에 매매
T. 978-494-2712(C), 978-794-9806(B)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Tailor & Alteration Shop for Sale

-37-Year Old Business in Marblehead, MA
-Owner Retiring
-Call Mr. Son at 781-985-0222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4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84-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교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익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802-734-2521
성균관대동창회	508-541-6969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미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413-567-9142
뉴햄프셔감리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한인교회	617-990-7619
라이코스교회	603-437-5134
라이스한인침례교회	603-264-6799
로어일랜드성동교회	978-387-1115
로어일랜드제일교회	508-926-8236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353-0983
메리맥 교회	401-944-2520
목양교회	801-821-2311
무지개교회	978-806-1363
밀양한인교회	617-223-1690
렉싱턴 풍성한교회	207-774-1617
버클랜드 침례교회	978-244-0691
보스톤 국제교회	617-953-0856
보스톤 감리교회	617-864-5948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781-393-00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285-8870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생명의교회	781-715-0571
보스톤서장로교회	617-947-6765
보스톤 성결교회	617-777-1800
보스톤 한울교회	978-578-6987
보스톤 소망교회	781-894-3958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8233
보스톤 안식교회	781-396-1004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686-5526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279-1763
보스톤 장로교회	781-279-3270
보스톤 제일교회	781-933-7044
보스톤 주님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중앙교회	508-435-4579
보스톤 침례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영교회	617-230-5004
보스톤 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2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앤디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스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궁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케이티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킨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샵롱	8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주재용)	617-421-2282
한서진내과	401-722-0305
한성신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 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 재활리치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카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한은애교정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617-871-1482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위장 질환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 어떻게 대처할까?



이번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네트워크 H+양지병원의 도움을 받아 위장 질환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는 바로 위장 질환이다. 위암은 10만 명 당 국내 환자 발생률이 남성 52.7, 여성 21.4로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렇게 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헬리코박터균)을 꼽는 이들이 많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층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 국내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 점막의 상피세포를 손상, 염증을 일으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헬리코박터균은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1급 암 유발인자로 분류한 바 있다.

헬리코박터균의 위험이 알려지면서, 이 세균을 제거하는 제균 치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질환이나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항생제 내성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어 제균치료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박재석 소화기병센터장은 “헬리코박터균이 위장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한 만큼, 위장질환이 있는 이들의 경우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모든 위장질환 및 위암의 발병요인이 헬리코박터균만은 아닌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성인 50% 이상 감염된 헬리코박터균, 가족간 감염이 주된 경로

헬리콥터처럼 생긴 모양에서 이름을 따온 헬리코박터균은 전세계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50%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병률은 연령이나 지역, 종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선진국에서는 낮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유병률이 높다.

헬리코박터균에 한번 감염되면 자연 치유 없이 짧게는 수년에서 일생 동안 감염이 지속된다. 다만 대부분의 감염자에게서는 별다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감염자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998년 증상이 없는 사람들 5,732명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6.6%, 16세 이상 성인의 66.9%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일부에게서 위염, 위궤양, 위암 같은 위장 질환이 발병한다는 점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약 2~3배 높아진다. 그 외 소화성 궤양이나 소화불량,

림프종 등 위장 질환과 헬리코박터균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사람과 사람 간 전파되며, 아동기에 가족 내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주 감염 경로로는 대변 등 분비물을 통한 분변-구강 경로와 구강-구강 경로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침이나 치석 등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는 경우는 낮아 술잔 돌리거나 키스 등으로는 감염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16세 이상 성인 기준 1998년 66.9%, 2005년 59.6%, 2011년 54.4%) 이는 위생환경 및 상태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전문의 상담 통해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헬리코박터균이 위장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제균 치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에서 제균 치료를 적극 권고하는 것은 소화성 궤양, 점막연관림프조직 림프종, 그리고 내시경 절제 시술(ESD)을 한 조기 위암 등 3가지 질환이다. 이 질환들은 제균 치료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합병증 감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이 위암 등 위장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모든 환자가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 만큼 제균 치료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더불어 항생제 내성 논란도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에 따른 성공률이 15년 동안 89.5%에서 68%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로 표준치료법에

대한 내성발현의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박재석 센터장은 “제균 치료가 일부 위장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한다 해서 위장 질환이 발병하지 않는 것도 아닌 만큼 고위험군 위주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며 “위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사전 차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헬리코박터균 예방 및 치료법〉

1.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고, 술잔을 돌리는 등의 비위생적인 식습관은 피한다.
3. 어린 아이에게 먹던 음식을 주지 않는다.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가족 내 감염, 그 중에서도 엄마-자녀 간 감염이 가장 흔하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엄마가 먹던 음식을 아이에게 주던 과정에서 구강 감염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
5. 정기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위 건강 체크하기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오직 손으로만 교정하는 정통 카이로 프랙터, Dr. Gonstead Chiropractic을 검색해 보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목(M-T) : 8am-8pm(야간진료가능) 금,토,일(Fri, Sat, Sun) : Closed





'살인자의 기억법' 배우 김설현 아깝지 않은 그 이름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김설현이 차근차근 '연기돌'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 배우 지와 임시완 등 선배 '연기돌'들에 이어 작품 속에서 제 몫을 오롯이 해내며 '배우'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김설현은 오늘(6일) 개봉한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원진연 감독)에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전직 연쇄살인범 병수(설경구 분)의 딸 은희 역을 맡았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은희의 연쇄살인범이 새로운 살인범의 등장으로 잊혀졌던 살인습관이 되살아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범죄, 스릴러. 김설현은 병수와 병수의 딸 은희, 그리고 병수를 긴장하게 하는 경찰 태주(김남길 분)까지 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화 속에서 한 축을 맡아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선보였다. 두 연기와 선배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앞서 김설현은 영화 '강남 1970'에서 주인공의 동생 선혜 역으로 짧지만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연기에 도전하는 아이들에 불과했던 그는 깊이있는 외모와 무난한 연기력으로 '연기돌' 변신 합격점을 받았다.

약 2년 만에 스크린에 다시 도전한 김설현의 두 번째 영화는 '살인자의 기억법'이다. 김설현이 연기한 은희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빠 병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효녀 캐릭터다. 병수의 알

츠하이머는 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은희는 지쳐가는 동시에 병수가 연쇄살인범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며 극도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다.

촬영 당시 김설현은 병수의 알츠하이머에 대한 걱정부터 수상한 행적에 대한 의심까지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연기 임에도 불구하고 감탄이 나올 만큼 놀라운 집중력으로 은희의 심정을 잘 표현해냈다. 이에 원진연 감독은 "감정을 표현할 때 가짜가 아닌 진심을 드러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

또 원 감독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도 김설현에 대해 "또 기회가 된다면 영화를 찍고 싶다"며 김설현은 꽃으로 치면 아침, 점심, 저녁 향기가 다른 꽃이다. 앞으로 다양한 느낌으로 인정받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 배우 김설현에 대한 대중의 거리감이 좁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다"고 그가 가진 배우로서의 매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미 영화와 드라마로 자신만의 이름값을 획득한 선배 '연기돌'들에 비해 김설현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신인 배우의 느낌이 강하다. 과연 그가 '살인자의 기억법' 은희 캐릭터를 통해 연기자로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준다. 일단 연기력 만큼은 '배우'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eujenej@news1.kr

'마술학교' 닉쿤 "첫 한국어 연기 촬영 전부터 긴장했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그룹 2PM 닉쿤이 '마술학교'를 통해 첫 한국어 연기에 도전하는 소감을 전했다.

닉쿤은 오는 11일 오전 7시 공개되는 JTBC 웹드라마 '마술학교'(극본 김도원, 연출 김도원)에서 레지던트 준 역으로 분한다. 미국으로 입양된 후, "세상에 갇힌 것이 많다"는 생각에 의사가 됐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한국에서는 6년째 살고 있다.

올해로 한국생활 10년차를 맞은 닉쿤. 그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은 여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았지만, 드라마에서 한국어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긴장했다"며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고 제작진과 동료배우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분방에 앞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렇다면 극 중 의사인 준이 '마술학교'를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준은 마음이 따뜻한 인물이고, 언제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신

의 직업을 대한다"며 "불치병을 앓고 있는 꼬마 소녀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마술을 배우고자 한다. 물론 조금은 이상한 마술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지만"이라고 귀띔, 박진영(GOT7), 윤박, 강윤제 등 '마술학교' 동지들과 함께 펼쳐갈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닉쿤은 마지막으로 "첫 한국어 연기이니만큼, 애정을 듬뿍 갖고 정말 열심히 촬영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마술학교'는 모태솔로 이나라, 천재 마술사 제이(윤박 분), 미국 입양아 출신의 레지던트 준(닉쿤 분), 최연소 천체물리학 박사 이성(강윤제 분) 등 달라도 너무 다른 4인방이 각기 다른 이유로 마술학교를 찾아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예측불가매직드라마다. 오는 11일 월요일 오전 7시 네이버TV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aluemchang@news1.kr



故 마광수 누구? '가자 장미여관으로' 원작자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소설가 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1951~2017)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66세.

마광수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51분 숨진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마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마광수 교수는 1977년 시인으로 등단해 1989년 장편소설 '권태'를 내고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소설집 '즐거운 사라', '자궁 속으로', '귀족', '불안', '발랄한 라라', '사랑의 학교',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 등이 있다.

마 교수는 성에 대한 자유로운 묘사로 인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던 작가다. 그의 작품 중 '가자 장미여관으로', '즐거운 사라' 등은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마광수 교수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1992년 소설집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당하게 되면서다. 당시 '표현의 자유'를 들어 마 교수를 옹호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 '가자 장미여관으로'는 영화 제작 도중 제작사에서 '변태성욕자'를 위



한 본격 포르노물"이라며 시나리오뿐 아니라 영화의 감독을 맡을 예정이었던 마광수 교수와 상의없이 연출자 교체까지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마광수 교수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한편 마 교수의 유족으로는 누나가 있다. 고인의 유족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돌아가셨다. 그동안 아파서 우울증이 있었다. 자살이다"라고 짧게 사인을 밝혔다.

eujenej@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8월 24일 ~ 2017년 9월 3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드라마(황금빛내인생)	21.8%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21.1%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20.8%
4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16.7%
5	KBS1	KBS9시뉴스	14.3%
6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3.3%
7	KBS1	전국노래자랑	12.0%
8	MBC	일일연속극(돌아온 복단지)	11.4%
9	SBS	정글의법칙INKOMODO	11.3%
9	KBS2	해피선데이	11.3%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3	KBS2	주말드라마(황금빛내인생)
4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5	MBC	일일연속극(돌아온 복단지)
6	SBS	아침연속극(달콤한 원수)
7	MBC	아침드라마(훈장 오순남)
8	MBC	주말특별기획(도둑놈도둑님)
9	MBC	특별기획(별별 며느리)
10	SBS	월화드라마(조작)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종니	윤종신
02	가시나	선미
03	비도 오고 그래서 (Feat. 신용재)	헤이즈 (Heize)
04	Red Sun (Feat. ZICO, Swings)	행주
05	N분의1 (Feat. 다이아믹듀오)	닉살, 한해 외
06	에너제틱 (Energetic)	워너원
07	빨간 맛 (Red Flavor)	레드벨벳
08	매일 듣는 노래 (A Daily Song)	황치열
09	요즘것들 (Feat. ZICO, DEAN)	행주, 양홍원
10	밤편지	아이유

숫자 퍼즐 (Sudoku)

4			3	2			9	
	3			7		8		
9		5						
6	5	3				4	7	2
				4				
2	4	8				3	1	9
						1		4
		7		6			8	
	2			1	9			5

9월 10일 - 9월 1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자신을 잘 다스려야</p> <p>● 운수: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의욕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만 잘 참고 넘어가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 금전: 열매를 보려면 땅에 씨앗을 뿌려서 가꾸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면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생활의 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소띠 변화의 바람이</p> <p>● 운수: 세상 그 어떤 일도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나 무엇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세요. ● 금전: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자신도 어찌할 수 없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0, 15일 길일, 14, 16일 주의.</p>	<p>범띠 휴식이 필요한</p> <p>● 운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변화나 변동은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떨어집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3, 16일 길일, 12, 15일 주의.</p>
<p>토끼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p> <p>● 운수: 공연히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마음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일의 성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할 때에는 도리어 손해로 끝나게 됩니다. ● 애정: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군요. 연애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주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2, 14일 길일, 10, 16일 주의.</p>	<p>용띠 위치가 올라가는</p> <p>● 운수: 기가 상승하니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는 때입니다. 직장인은 승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금전: 이익이나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이 풀리면서 물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 애정: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2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뱀띠 일석이조의 운세</p> <p>● 운수: 아무런 욕심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해보세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서 금전운세가 호전됩니다. 황재운도 찾아드는 일석이조의 운세입니다. ● 애정: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도록 하세요.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1, 16일 길일, 10, 12일 주의.</p>
<p>말띠 침착하게 대처하는</p> <p>● 운수: 문제를 회피할수록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실물수가 있으니 현금이나 귀중품은 될 수 있는 대로 지니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양띠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잡아야</p> <p>● 운수: 다음 계획을 목표로 하여 자신의 발판을 확고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마무리 과정에서 망설이다가는 뿌린 만큼 못 거둘 수 있습니다. 행동은 신속하게 생각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 애정: 특별한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도 아직은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3, 16일 길일, 10, 11일 주의.</p>	<p>원숭이띠 호조를 띠게</p> <p>● 운수: 사업상으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원자와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진지한 말을 주고받게 되겠습니다. ● 금전: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투자관계도 호조를 띠게 됩니다.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 애정: 속 이야기나 인생 다투리까지 무리 없이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닭띠 양보를 많이 해야</p> <p>● 운수: 인과관계에서 양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은 결과가 없고 시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승부의 결정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 애정: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개띠 신중히 행동하도록</p> <p>● 운수: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라져온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때라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를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애정: 쉽게 용서할 수가 없더라도 미움을 품고 살면 자신의 삶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돼지띠 핑크 빛 무드가 감동고</p> <p>● 운수: 생각에 그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큰 수확이 보장되는 때입니다. ● 금전: 거칠 것이 없는 시기이니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일 것입니다. 특히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핑크 빛 무드가 감동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시기로 최상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장윤주, 5년만에 앨범 '리사' 발표

"딸 리사 덕에 다시 음악"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장윤주가 5년 만에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왔다.

6일 소속사 에스티 엔터테인먼트 측은 "장윤주가 오는 11일 미니앨범 '리사(LISA)' 를 발표한다" 며 "특히 장윤주가 직접 작사, 작곡 연주에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인 바. 여자들의 워너비 톨모델로서 엄마가 된 지금의 모습을 모든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그만의 섬세한 감성 표현을 느낄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한다" 고 전했다.

또한 장윤주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앨범이 나옵니다. 나의 음악은 1, 2집으로 족하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와 영감을 주는 딸 리사에 의해 다시 음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미니앨범 'LISA' 는 2012년 2집 앨범 이후 5년 만에 공개되는 앨범으로, '리사'를 포함해 "영원함



을 꿈꾼다" 가 수록되어 있으며, 연 주곡 "LISA (Inst.)" 까지 총 3곡 이 담겨 있다.

이번 앨범은 그동안 볼 수 없던 신선한 테마로 나뉘어 있다. 바로 리사 테마와 엄마 테마. 우선 리사 테마인 '리사'는 장윤주가 아이의 눈높이에서 깨끗하게 꿈꾸는 듯한 느낌의 노래다. 엄마 테마인 "영원함을 꿈꾼다" 는 여전히 꿈을 꾸는 여자로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노래로, 두 노래 모두 그녀의 솔직한 감정이 가득 담겨있다.

장윤주는 디지털 싱글 '플라이 어웨이(Flyaway)' 부터 1집 앨범 '드림(Dream)', 2집 앨범 '아이

파인(I'm Fine)', 이번 앨범 'LISA' 까지 벌써 4개의 앨범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이어 지난 5일 처음 방송된 tvN '신혼일기 2' 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컴백과 동시에 가장 그다운 모습으로 앞으로의 활동들을 예고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되는 'LISA' 가 '신혼일기 2' 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장윤주의 미니앨범은 9월 11일 발매되며, 다가오는 24일에는 '원더우먼 페스티벌' 에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ichi@news1.kr

송해 "송해가요제 개최 이유 70년 받은 사랑 화답하는 길"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방송인 송해가 제1회 송해 가요제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송해는 6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1회 송해 가요제 기자간담회에서 "평생을 마이크를 갖고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흥분되고 초조한 날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생활의 즐거움과 슬픔이 어디서 오가는 생각이 있다. 저는 70년동안 무대 생활을 해왔다. 가수로서 화답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더듬어 보니까 선배가 되기까지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 선배와 같은 가수가 됐으면 하는 후배들도 많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또 송해는 "평소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르는 것이 노래가 아닌가 한다. 노래는 우리 역사와 함께 흘러온 것이기도 하다. 가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달래주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정신 없이 흘러가는 유행을 따라서 상당히 소외받는 느낌도 받았다"고 선배로서 느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해는 이어 "노래는 인생의 역사이기도 한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잊혀지지



전에 우리가 부른 가요를 제자리에 돌리고 새롭게 발전시키고 새롭게 조화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가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한편 제1회 송해 가요제는 가요계 발전과 가수의 꿈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등용문이 돼주고자 만들어진 가요제로, 서울 종로구가 함께 한다. 참가자격은 15세 이상부터 40세 이하로 지난 3일 1차 예선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일 추가 예선을 진행한다. 이후 총 18팀을 뽑아 오는 9월17일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본선을 진행한다. 수상자에게는 음반취급 및 대한가수협회 인증서가 수여된다.

aluemchang@news1.kr

'냄비받침' 트와이스 정연 부친, 멤버들 위해 특별 라볶이 선사

(서울=뉴스1스타) 장수민 기자 = 5일 방송된 KBS 2TV '냄비받침'의 최종회에서는 트와이스가 지난 3개월간의 출판 여정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트와이스는 지난 방송에서 '냄비받침'의 작가로 출격하며 자신

들의 사생활을 과감하게 밝히는 '트와이스 갈 거야?'라는 책을 만들는데 도전하게 됐다.

특히 이날 트와이스 멤버들은 기상천외의 라볶이 만들기에 나섰다. 이들은 라볶이에 꿀떡, 피자소스, 요거트, 계란프라이 등을 넣어야 한다고

해 제작진을 경악시켰다.

한편, 이날 세프인 멤버 정연의 부친이 직접 멤버들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한 라볶이를 완성해 멤버들에 선사했다. 그 맛은 의외로 훌륭해 더욱 감동을 더했다.

jim928@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Korean speaker : Sales Representative Wanted

True World Foods is a leading food wholesaler delivering sushi related products to restaurants throughout New England. We are expanding into the Korean markets and need a rep who can speak Korean, but who is also competent in English. The job starts at 6am Monday through Friday (work a half day every other Saturday). Need to maintain customer accounts and opening new accounts, visiting customers. Should have a valid driver's license with a relatively clean driving record, adequate office skills including computer literacy, and familiarity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and/or wholesale food business would be a plus.

Compensation will be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abilities. Benefit package and/or green card sponsorship may be available.

To apply please send your resume to: True World Foods Boston c/o 스티브 김, 22 Foodmart Road, Boston, MA 02118. Or email to stevekim@trueworldfoods.com

Tel: 617.596.1377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도둑님' 서현 · 지현우, '백' 없는 흡수자는 시럽다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도둑놈 도둑님'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여고생 서현, 정당하게 쟁취한 우승 금메달을 눈 뜨고 빼앗기게 생긴 지현우, 두 사람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28일 오후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도둑놈 도둑님'(극본 손영목 차이영/연출 오경훈 장준호)에서 강소주(서현 분)와 장돌목(지현우 분)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날 강소주의 고교시절이 공개됐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강소주는 왈가닥 말괄량이 캐릭터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윤화영(임주은 분)은 새침하고 까칠한 스타일의 반장으로 나타나 강소주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예쁨 받는 윤화영, 그의 집에 얹혀살지만 항상 구박을 받는 강소주. 두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윤화영 가족의 폭언을 들은 강소주는 스트레스를 풀러 한 클럽으로 향했다. 이때 이윤호(한재석 분)가 그를 발견, "화영이네 집에서 빌붙어 사는 주제에 튀기지 좀 말아라" 고 폭언했다. 이윤호는 자신을 무시하는 강소주를 돌려세우고 따귀를 때렸다.

이때 이윤호의 펜싱 승부 조작에 단단히 화가 난 장돌목이 클럽에 들어왔다. 그는 "이윤호 진짜 쓰레기네. 심판 매수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센서 결합이냐" 며 이윤호를 제압하고 강소주를 데리고 도망쳤다.

ichi@news1.kr

티보플레이 8월 5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이름 없는 여자 |
| 2 | KBS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 3 | KBS | 황금빛 내 인생 |
| 4 | SBS | 언니는 살아있다 |
| 5 | MBC | 돌아온 복단지 |
| 6 | SBS | 달콤한 원수 |
| 7 | MBC | 훈장 오순남 |
| 8 | MBC | 도둑놈 도둑님 |
| 9 | MBC | 별별 며느리 |
| 10 | SBS | 조작 |

티보플레이 8월 5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황금빛 내 인생 |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1 | 미정 |
|---|----|

'불청' 보라카이에 온 멤버들 정유석 '착한투어'로 취향저격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불타는 청춘'멤버들이 임성이 살고 있는 보라카이를 찾아 본격 여행에 나섰다.

5일 SBS '불타는 청춘'에선 보라카이로 떠나는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정유석은 늘 보라카이에서 한국까지 먼 길을 와야하는 임성을 위해, 역으로 멤버들이 찾아가자는 제안을 했다. 정유석의 '보라카이 착한투어'가 펼쳐지게 된 것.

이에 정유석과 김광규, 김도균은 완벽한 여행을 위한 준비와 답사를 위해 먼저 보라카이로 떠났다. 그들은 비행기와 배를 갈아타가며 보라카이에 도착했다. 이어 임성이 운영하는 스카를 찾아가 그녀를 놀라게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일주일 후에 김국진, 강수지, 김완선, 최성국, 박재홍, 이연수 등 멤버들이 보라카이에 도착했다.

breeze52@news1.kr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9월 한달
프로모션
\$9⁹⁹
~~\$14.99~~

KBS MBC SBS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9⁹⁹
7.31.2017까지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19⁹⁹
7.31.2017까지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29⁹⁹
7.31.2017까지

*전상품 무약정

Clean Site | KBS | MBC | SBS | SBS Plus | tvN | XTM | On Style | Mnet | O'live |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따라
9월 한달
프로모션

\$9⁹⁹
~~\$14.99~~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9⁹⁹

7.31.2017까지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19⁹⁹

7.31.2017까지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29⁹⁹

7.31.2017까지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신영의 **세상 스케치**

61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상하신 엄 총영사님 내외분을 뵈면서...

응석 부리던 내 삼촌 같고 투정 부리던 친정 오빠처럼 편안하고 든든한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 바로 보스턴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님이다. 언제 봐어도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총영사님과 늘 조용히 옆에 계시는 사모님이 계신다. 이 두 분을 뵈고 돌아오는 길은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친정 오라버니와 올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같아 좋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마음과 두 손으로 맞잡아 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일 게다. 한인 사회의 행사가 있을 때나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 총영사관에 들를 때될 수 있지만 늘 가슴 따뜻해진다. 총영사관에는 영사님들도 몇 분 계신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지만, 왠지 영사관을 들어설 때의 느낌은 편안함보다는 경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편치 않았던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엄 총영사님과 사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이 있어서인 것이다. 총영사님 곁의 영사님들의 자상함도 큰 몫을 한다. 그만큼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정부와의 관계 교류와 함께 한인 동포들의 대변인의 역할과 한인 이민자들의 격려와 용기를 주

시고자 더욱 노력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기에 우리 이민자들 또한 감사한 것이다. 늘 빌 때마다 잊지 않으시고 '보스턴코리아 칼럼 잘 읽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신다. 물론, 인사 말씀인 것을 알지만, 내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 내 수필집이 2014년도에 출간했으니 아마도 2년 전쯤일 게다. 총영사님을 어느 행사에서 뵈게 되었는데 인사 말씀 중에 수필집도 보내달라는 말씀을 해주신다. 일찍 보내드릴 것을 주춤하고 있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었다. 그리고 그 후 '수필집과 시집' 두 부씩을 총영사관에 보내드렸었다. 엇그제는 총영사관 모임에서 말씀을 해주신다. 총영사관에 진열해 놓은 책 보았느냐고. 어떤 관계에서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진실은 통하는 법이다. <한미노인회>와<상록회>노인들 모임에도 참석하셔서 어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자상하게 얘기를 나눠 주신다. 나중에야 들은 얘기지만, 노인들 몇분의 말씀이 총영사님도 참 좋지만, 사모님이 너무 좋다는 칭찬의 말씀들을 해주신다.

어른들의 그 말씀을 들으며 나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주인공이 없는 자리에서 노인회 어른들과 함께 더욱 마음 뿌듯한 얘기를 나눴다.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몫과 역할이 아니기에 더욱이 귀하고 값진 것이다. 보스톤에 <국제선>이 있다. 국제결혼가정 선교회(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Family Mission) :국제선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화 충격과 언어 차이로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여성들은 물론 노인, 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봉사단체이다. 뉴잉글랜드 보스턴 지역의 이민자들의 삶과 역사를 찾아 30~40여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에 '유학생 가족'으로 이민 온 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족'으로 이민 온 이들이 많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국제결혼자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렇듯 아주 오래전 국제결혼을 하고 이민 와서 가족들을 초청해 살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며,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신다. 그렇지만, 그 지난 아픔과 외로

움의 시간이 있었고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리라. 그래서 삶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든든한 나무'가 되어 삶이 버겁고 힘든 사람들이 쉬어가는 '나무 그늘'이 되어 주는 것이리라. 이렇듯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로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스턴총영사관의 엄성준 총영사님과 사모님이신 것이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두 손 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그런 모습을 말없이 멀리서 지켜보는 버릇이 내게는 있다. 어쩌면 글쟁이라서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말과 행동의 스토리를 듣는 버릇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듯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숲속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을 나무로 놓는 것이다. 그 '이야기의 풍경'을 가만히 두고 보노라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총영사관 총영사의 역할이 바로 타국에서 사는 대한민국 동포들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몸소 피부로 느끼는 암행어사의 역할이 아니던가.



한담객설閑談客說: 묵은지 사랑



김화옥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김치엔 고추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백김치도 있으며, 물김치도 있다. 하지만, 김치는 맵고 볶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 깍두기와 열무김치도 있다. 늦은 겨울과 이른 봄에 걸쳐 자주 맛보던 음식이 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만두국이다. 신 김치로 만두소를 만든 다음, 만두를 빚어 내는 거다. 어머니의 신 김치 만두국은 거의 환상이었다. 요새 신 김치를 묵은지라 하는 모양이다. 일부러 묵은지를 만든다고도 했다. 김치찌개에는 역시 묵은지가 들어가야 한다. 그럴진대, 김치찌개는 바글바글 뜨겁고, 색깔을 더해 진

한 주홍색이 되어야 한다. 흰색 두부 한모와 푸른 파와 색깔이 조화롭다. 군침도는 밥상차림이다. 김치찌개는 집에서만 먹는 건줄 알았다. 이젠 식당 메뉴판에도 버젓이 올라있다. 점심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모양이다. 요새도 김장을 담구는가? 소설가 스티븐 킹의 말이다. '글 쓰기에는 격려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어디 글쓰기에만 친구가 필요하랴. 나와 가까운 친구가 지은 시이다. 시상詩想이 가득하다. 운무에 비 걸리니 고우古友 같길 멀어지네.

잊지 못할 인연일랑 처마끝에 매어두세. 옛사람 배인 향은 묵은지도 비켜가리. 한잔 술에 그려넣고 조만조만 넘겨보세. (이문당 황선희, 운무에 비 걸리니)

운율이 입안에 굴러 부드럽게 읽힌다. '옛사람 배인 향은 묵은지도 비켜가리.' 에서 자 지러 졌다. 묵은지도 비켜 간다니. 신 김치보다 깊은 맛이라는 말일게다. 묵은지는 맛이 묵직 한데, 꽃향내의 달콤함은 아니다. 구수하다기엔 섭섭하고, 짜거나 맵지도 않다. 사각사각 씹히는 맛도 없다. 오히려 주욱 찢어 어적어적 씹어야 제맛 일터. 너무 뜨거운 묵은지 김치찌개는 야금야금 씹어야 하고, 조만조만 넘겨야 한다. 막걸리 한 사발에 지그시 곁들여 씹어댄다면 맛이 그윽할 수 있겠다. 잊지 못할 인연일랑 이라 하길래, 멈칫했다. 잊지 못할 인연이라. 그 친구와 얹지 않은 정분

이 쌓였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직도 인연이 이어지지 않았던가?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을 먹어치워야 인연이 닿을 것인가? 설마 잣수字數를 맞추느라 넣은 구절은 아니겠지. 설사 그렇다해도 깊이 꽤넘치 않는다. 시는 어차피 가락과 감感으로 읽는 것 아니겠나. 작가에게 되물었다. 고우는 옛친구 古友라 풀어도 되겠느냐? 옛사람이라 했고 묵은지라 했기 때문이다. 그래 맞구만. 시인의 즉답이었다. 맞닿은 인연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다행인지 고우는 고우故友가 아니다. 묵은지 이야기 꺼냈다가 괜한 입맛만 다신다. 그리고 보니 오이지 먹는 계절아닌가. 아직 저녁시간 멀었나?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일까? 오이지일 수도 있겠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요한3서 1:15)



한국에서의 숙박 고민되시나요?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휴람 - SKY PARK HOTEL 제휴 특별 이벤트



호텔 스카이파크 명동2호점 (을지로입구역)

대한민국 관광과 비즈니스의 중심인 명동에 자리잡은 호텔입니다. 주요 언론사, 금융회계, 대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비즈니스와 관광 및 쇼핑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호텔입니다.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 (동대문 역사공원역)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은 스카이파크 브랜드의 럭셔리 클래스 호텔로 도심 속의 고품격 호텔입니다. 지하철 2,4,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연결되어 있어, 관광, 맛집, 쇼핑 등 여행에 탁월한 위치와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서울의 유명여행자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 각종 연회를 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객님께 최고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고품격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남 프레힐 호텔 (논현역)

주중 : ₩94,000원 ~ ₩109,000원
주말 : ₩104,000원 ~ ₩119,000원
(※부가세 포함 / 조식 미포함)

- 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 위치** 명동(을지로입구역), 동대문(동대문 역사공원역), 강남프레힐호텔(논현역)
 - 호텔 사양(퀄리티, 위치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 예약은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 계좌 입금)
 - 상기 비용은 휴람을 통한 예약 진행시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 호텔 예약 시즌에 따라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을 두고 예약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담당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키오독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에이전트를 선택 하는 법 #1

앞으로 3주 동안은 에이전트를 선택 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난 에이전트로 시작해서 이제 회사를 시작한지 9년 된 브로커다. 이번에 타주에 계시는 어머니 집을 파는 일로 오래 알던 후배 3년차 에이전트를 고용했다가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쓰기로 했다. 한번에 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세 칼럼으로 나누어서 써 보려고 한다.

1.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고용하라. 부동산 매매 과정은 다 다릅니다. 집이 다 다르듯이 매매 과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에이전트 중에서 누가 잘 할까요? 얼마 전 고객이 질 찾아 오셨습니다. 본인이 B Town에 소유하고 있던 집과 식당을 저와 예전에 같이 일하던 에이전트가 팔았다고 하시며 이제 집을 사야 해서 찾아 왔다고 하셨습니다. 전 왜 저랑 같이 일했던 에이전트와 안

하시고 저를 찾아 오셨냐고 당연히 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식당과 집을 파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 그 에이전트 너무 말이 많다. 당연한 일 아니겠냐! 그 에이전트는 일을 시작하지 한 4년 정도되었습니다. 옛날에 에이전트들이 없을 때에는 4년 했어도 많은 거래를 경험 했지만 요즘 같이 경쟁이 심한 때 새내기 에이전트가 얼마나 했을까요 아무리 4년이라도...

2. 똑똑한 에이전트를 선택하라. 브로커를 해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은 많아요 이 일로 먹고 살 만큼 버는 사람은 전 에이전트 중에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3. Full Time 에이전트여야만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면서도 다른 일을 같이 하는 에이전트가 많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24시간 Available 해야 하는 일이다. 고객이 집을 맡겨 놓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는데 집에 파이프가 터져 뛰어가 보아야 하는데 식당을 하는 에이전트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가 볼수 있을까.

4. 내 편이 되어 주는 에이전트여야만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는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다. Mandatory Disclosure에 그래서 사인 한다. 중간에서 셀러 트립 잡고 바이어 트립 잡아 Case를 성사시키려 하는 에이전트를 내가 경험 했다.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는 에이전트와 일하기란 힘들고 거래가 나에게 이렇게 성사 되기 어렵다.

5.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에이전트도 잘한다. 난 회사에 아침 7시에 나온다. 일단 9시에 출근할 사무장에게 지시

할 일을 1시간 정도 정리해야 하고 내가 그날 해야 할 일을 1시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일을 시작한다. 사람이 성실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의 차림세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세일즈하는 사람이므로 항상 깨끗하고 남보다 빨라야 한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94

화랑세기(花郎世紀), 7세 풍월주(風月主) 설화랑(薛花郎)(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화랑세기(필사본)가 출현되기 전까지는 모든 화랑의 낭도들이 왕이나 귀족 등 최상류층 자제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았다(삼국사기 등 기존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37년, 에 보면 화랑의 설치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나라 영호정승 狐澄이 ‘신라국기新羅國記’ 에서 말하기를 <귀인貴人의 자제 중에서 아름다운 자를 뽑아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 이르기를 화랑이라 하였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받들어 섬겼다> 라고 하였다” . 그리고 위키백과에도 화랑은 “왕과 귀족의 자제로 이루어졌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한미한 출신의 젊은이들도 화랑이 되었으며 심지어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가 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시랑未尸郎과 설화랑薛花郎이다. 미시랑은 천애고아였으며 집이 없어 노숙자로 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는 화랑의 수장인 국선에 까지 올랐다. 즉 인격과 덕망 그리고 용의勇義와 용의容儀가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를 ‘용맹성과 정의감’ 을 용의勇義로, ‘준수한 외모’ 를 용의容儀로 표현했다). 그리고 설화랑은 원래의 이름이

설원랑이다. 그의 아버지는 설성이며 어머니는 금진낭주이다. 설성은 미천한 출신으로 구리지의 용양신이었다. 용양신의 언급은 화랑세기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2세 풍월주 미진부전에 박영실이 범흥왕의 용양군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5세 풍월주 사다함편에 설성이 구리지의 용양신으로 나오고, 7세 설화랑편에 다시 한번 구리지와 설성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남색을 연상케하는 기록이 출현하지만 용양군/용양신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춘추전국시대의 7웅 중의 하나인 위나라의 안리왕과 그의 총신 용양군의 고사를 보면 용양군/용양신은 남색으로 주인이나 상관을 받드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그 어휘의 의미는 그러한 관계를 묘사할 때만 사용하였다(화랑도와 성 그리고 태권도 154편 참조).

구리지는 아버지가 비랑공이며 어머니는 벽화부인이다. 벽화는 당시 신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이었으며 제21대 소지왕(비처왕)이 그 미모에 반해 경주에서 영주까지 몇 차례 잠행을 하면서까지 찾아갔다가 결국 왕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벽화의 미모에 빠진 사람은 비록 왕 뿐만이 아니었고 비랑공 또한 그 중의 한명이었다. 그래서 주야로 벽화를 만날 궁리만 하다가 그녀가 가는 뒷간을 택했고 그들은 거기서 통정하였다. 지속되

을 잘 불었으나 출신이 한미하여 낭도들이 반들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미실이 임금의 총애로써 호령하여 낭도들을 예속시켰다. 낭도들은 감히 여러 말을 못했다. 미실은 늘 진귀한 하사품을 보내주며 설원에게 말하기를 “너의 낭도를 잘 타일러 보겠다” 했다. 설원은 이에 몇몇을 얻어 심복으로 삼았다. 7세 풍월주가 됨에 이르러 미생을 부제로 삼고, 아랫사람들에게 몸을 굽히고 제물을 풀어주어 사람을 위로하니 낭도들이 모두 복종했는데, 오히려 미흡함이 있었다. 미실은 이에 설원에게 권하여 모랑공의 과처寡妻인 준화낭주를 아내로 맞도록 했다. 낭주는 그 때 나이가 38살이었고 과부로 산지 18년이었다. 다시 화랑을 얻어 아버지 삼아 마침내 아들인 설웅薛雄을 낳았다. 이에 여러 낭도들이 축하하여 말하기를 “위화랑공의 손자이다” 했다. 다시 불복하는 사람이 없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www.gch.go.kr)



방학맞이 선명한 눈매, 오뎅한 콧날을 원하시는 당신이라면



고국 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 당당한 그녀가 아름답다! ”

당당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얼굴을 찾아드리는 기회!
방학맞이 고국 방문 성형 이벤트를 이용해보세요.
 고객님의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병원 맞춤 컨설팅! 휴람!

01 EVENT **눈 성형**

- * 단매듭 연속 매몰
110 만원 → **88 만원**
- * 부분 절개
154 만원 → **123 만원**
- * 매직트임
110 만원 → **88 만원**

02 EVENT **코 성형**

- * 콧대 성형
220 만원 → **165 만원**
- * 코끝 성형
220 만원 → **165 만원**
- * 콧대 + 코끝 성형
385 만원 → **308 만원**



☐ 휴람에스테틱 협력병원



- 상기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의료사업담당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당신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I)?'

지난번 칼럼을 통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용기가 오히려 더 정직한 이별법임을 피력했다.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이별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양체를 식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가지지 못할 수록 느껴지는 '갈애' 때문이다. 갈애를 열망으로 착각하기 쉽다. '열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반면 '갈애'는 어원적으로 '목마르다'에서 파생되었다. 사막에서 물을 못 구한다고 상상해보자.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애타게 물을 마시고 싶은 갈구가 생긴다. 이것이 갈애다. 사랑을 받고 싶는데 자신에게 대면 대면해지는 그 사람, 자신을 외롭게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더욱 갈구하다보면 자연히 '갈애'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결국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에 대한 분노, 단 한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탐욕은 집착으로 전이되고 만다. 집착은 자신도 모르는사이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한다. 설상가상 이별의 모습에서 지켜가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헤어지는 이유라며 자신의 진솔한 사랑은 기만당할 수도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수잔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왔다. 그 이유는 그녀의 성격이 원인이었다. 수잔은 남편 빌과의 이혼을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매달렸다. 그녀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빌은 그녀를 더 밀어냈고 결국 빌은 집을 나가고 말았다. 3년간의 긴 여정의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수잔은 마음도 몸도 지쳐갔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두 아이들을 잘 돌볼 수도 없었다. 빌은 새 여자친구를 만나 그의 두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잔의 우울증을 이유로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가져가려고 법정에 청구 중이었다. 어느 날 술이 심하게 취했던 빌은 새 약혼자에게 자신이 수잔을 떠난 진짜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술이 깬 후 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했다. 빌은 수잔과의 결혼 생활 중 불륜의 관계를 갖

고 있었다. 빌은 교묘히 자신의 불륜을 합리화 하면서 이혼의 이유를 수잔의 성격으로 몰았던 것이다. 이혼 후 그의 불륜녀와 결혼을 하려 했는데 그의 불륜녀는 그를 떠났다. 인과응보였다. 빌의 새 약혼녀 제시카는 필자의 클라이언트였다. 제시카는 테라피 중 자신이 빌과 결혼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빌이 가지고 있는 암체적인 성향으로 자신 또한 피해자가 될 거라는 판단에 빌과의 결혼을 중지시켰다. 그리고 제시카는 빌에게 그의 비리를 수잔에게 알린다고 공표했다. 그 후 뒤늦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수잔의 빌에 대한 집착의 이유, 우울증의 이유가 밝혀졌다. 그리고 제시카는 수잔의 우울증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캐서린은 우연히 남편 조우의 휴대폰에 뜬 텍스트를 읽게되었다. '출장 후 잘 도착했냐'라는 문자였다. 짝막한 글이었지만 직감적으로 단순한 안부 문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왔다. 그 이후로 캐서린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이 여태껏 믿고 지켜온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조우는 너무나 완벽한 남편이고 자상한 아빠였다. 조우는 아주 유능했고 캐서린으로 하여금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다른 여자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여자로 느끼게 했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다. 조우의 부인, 두 아이들의 엄마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고 당당하게 해주었다. 대학원의 고 학력을 지닌 소유자였지만 가정을 지키는 가정주부라는 그녀의 정체성은 자신의 생애 충분하였다. 그의 의문의 문자를 본 이후로 캐서린은 더 이상 그녀의 궁금증을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남편이 잠든 후 몰래 그의 휴대폰을 보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그의 문자를 보기시작하면서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남편 조우가 근 몇년간 다른 여자와 다정한 문자를 나누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 내용은 매우 진지했

다. 자극적이거나 성적이나 감각적이지는 않았지만 캐서린은 자신의 남편이 그녀에게 주는 따뜻한 말, 진정한 말들을 읽으며 심한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의 고민을 그녀에게 털어놓았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딱히 불륜이라고 꼬투리를 잡기에는 충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그녀가 나누는 대화는 서로에게 깊이 무언가에 빠져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시 망설였다. 어떻게 조우의 불륜의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그가 만약 그의 불륜을 시인한다면 자신이 지내온 남편에 대한 특별한 자신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정체성은? 여태껏 지내온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감이 안전할까? 그리고 그녀의 가정은? 아이들은?

어디까지가 불륜인지, 불륜의 정의가 매우 애매한 시대가 왔다. 불륜의 역사는 태초 인간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간음은 부부사이 가 아님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다른 배우자를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간음이라고 일침했다. 이렇게 간음은 불륜으로 지칭되어졌다. 성경말씀대로라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치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성인은 없을 것이고, 만약 결혼을 한 성인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저기 성을 자극하는 선정문구, 드라마, 영화를 보며 성적인 생각을 피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발달하면서 불륜의 정의가 좀 더 다양해졌다. SNS를 통한 감정적인 불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과 대화를 비밀로 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불륜(Emotional Affair)'이라 지칭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정적인 불륜'을 자신의 삶에 활력소를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단정지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러할까?

캐서린과 조우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조우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일을 갔다가 고등학교 시절 썸을 탔던 옛 여자친구를 만났다. 자기 전문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녀를 보면서 옛 시절의 호감이 다시 느껴졌다. 웬지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젊어지는 생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동창회를 끝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옛 여친의 이메일 주소를 물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옛 여친과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그러면서 그녀와의 대화시간에 대한 욕망(Desire)은 더욱 커져갔다. 자신의 바쁜 일정때문에 억지로 시간을 내야함에도, 철저히 비밀로 부쳐야 하는 죄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대화는 짜릿한 마력이 있었다. 단 한번도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적이 없고 자신들의 어린시절 이야기와 일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 생의 열정을 주고 받았지만 그녀를 생각하면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강렬하고 황홀한 전율이 느껴졌다. 결혼 생활 중 단 한번도 다른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만큼 조우는 일부일처제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옛 여친과의 대화는 그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망,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망,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망을 채워주었다. 그녀를 절대 소유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은 더욱 그녀를 갈망하게 했다.

캐서린이 조우에게 옛 여친과의 사이를 추궁했을때 자신은 옛 여친을 끊으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집착했다고 자기방어를 했다. 캐서린은 조우에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옛 여친에게 끝내자는 문자를 자신의 앞에서 보내라고 강요했다. 조우는 그의 옛 여친의 집착에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왔다고 다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의 '감정적인 불륜'을 은닉했다.

(다음 칼럼에서 '당신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의 칼럼을 마무리 짓기로 한다.)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mail.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바른 의료
앞선 의술
바른 진료

세란병원 제휴 런칭기념 종합검진 특별가

- 기간 : 2017년 7월 1일 ~ 2017년 12월 31일(해당 기간내 검진 시행자)
- 대상 : 휴람을 통한 예약 진행 해외거주자에 한함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S등급 병원(최고 등급)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30년 전통의 세란병원은 의료관광 휴람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동포분들께 최고의 시설에서 편리한 검진을 해외동포 특별가로 제공합니다!

- ◆ 1,200여평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 검진센터!
- ◆ 병실이 아닌 호텔급의 특급 객실 셋팅으로 편안한 숙박 제공!
- ◆ 최신 스마트 검진 시스템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해진 윈스탑 검진과 2차 진료 연계!
- ◆ 검진과 스파, 미용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편안한 검진과 피로 회복 및 성형 뷰티 관리까지!
- ◆ 일산, 과주, 고양, 서서울 지역에 체류하는 해외 동포분들의 편리한 접근성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앞 1분거리)

[종합검진 기본 항목]

기본진료(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인과(안저, 안압), 폐기능, 체성분, 심전도, 흉부촬영, 위장검사(수면내시경), 종양표지자(간, 전립선, 난소암), 상복부초음파(간장, 신장, 담낭, 비장, 췌장), 부인과(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당뇨(혈당, 당화혈색소), 신장기능, 간기능, 고지혈증, 심혈관기능, 동맥관찰염, 혈관벽성질판, 전해질, 위장기능, 갑상선기능,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일반혈액, 소변검사, 구강검사



휴람 당일 종합검진

★ 당일 08:30~ 12:30(오전 4시간) / 즉 제공

남성 50만원	여성 50만원	49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 지방CT 중 택1 검사),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 지방CT 중 택1 검사)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휴람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셋트 제공

남성 80만원	여성 80만원	69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대장 수면내시경, 동맥경화 협착 검사, A형간염검사, CT 선택검사 1 또는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대장 수면내시경, 동맥경화 협착 검사, A형간염검사, CT 선택검사 1 또는 초음파 검사 1 (유방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중 1),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휴람 정밀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셋트 제공

남성 150만원	여성 150만원	125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뇌 MRI, 뇌 MRA,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지방CT 중 택1 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혈액표지자), A형간염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뇌 MRI, 뇌 MRA, CT 선택검사 1 (뇌CT, 폐CT, 경추CT, 요추CT, 복부지방CT 중 택1 검사) 초음파 선택검사 1 (유방초음파 또는 경동맥초음파중 택1), 대장 수면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A형간염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혈액표지자)	

휴람 VIP 숙박 종합검진

★ 숙박일 14:00~익일 13:00(1박2일) / 즉 제공 / 입원 물품 셋트 제공

남성 300만원	여성 300만원	244만원 남·여 동일가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부티성형 선택검사 1(화이트닝레이저, CO2레이저, 보톡스2부위 중 택1), 메디칼 테라피(80분), 영양제 투약상담후 본인에 맞는 영양제, MR 선택 검사 2 (뇌MRI, 뇌MRA, 요추MRI, 경추MRI 중 택2), CT 선택검사 2 (뇌, 폐, 경추, 요추, 복부지방, 부비동, 갑상선CT 중 택2), 모발증진속검사, 남성호르몬검사, DNA 유전자 19종검사, 심장초음파, 뇌혈류검사, 호모시스테인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전립선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폐암, 혈액표지자), A형간염검사	종합검진 기본항목 + 특급객실(메디텔) 1박, 부티성형 선택검사 1(화이트닝레이저, CO2레이저, 보톡스2부위 중 택1), 메디칼 테라피(80분), 영양제 투약상담후 본인에 맞는 영양제, MR 선택 검사 2 (뇌MRI, 뇌MRA, 요추MRI, 경추MRI 중 택2), CT 선택검사 2 (뇌, 폐, 경추, 요추, 복부지방, 부비동, 갑상선CT 중 택2), 모발증진속검사, 여성호르몬검사, DNA 유전자 19종검사,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뇌혈류검사,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검사, 호모시스테인검사, 대장 수면내시경, 갑상선초음파, 자궁경초음파, 골다공증검사, 생체나이검사, 동맥경화 협착검사, 스트레스검사, A형간염검사, 종양표지자검사(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혈액표지자)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02)

재정설계사에 대한 질문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나의 재정설계사가 과연 나의 이익(Best Interest)을 먼저 생각해서 투자하는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지?’ 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재정설계사가 한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추천한 금융상품을 파는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그저 적당한 의무(Suitability Duty)만이 있습니다.

주식 브로커(Stock Broker), 보험 에이전트(Insurance Agent),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

자자에게 반가웠던 소식은 내년(2018)부터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신용 의무(Fiduciary Duty)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식은 또 18개월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설계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대부분 금융기관은 ‘신용 의무’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며 또한, 비싼 어뉴티(Annuity)와 같은 금융상품 판매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Class Action Lawsuit)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문인 월스트리트지에 오랫동안 재정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제이슨 즈웨그(Jason Zweig)는 ‘신용 의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재정설계사를 고용할 때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19개 항목을 최근 발표(The 19

Questions to Ask Your Financial Adviser, WSJ, Aug. 25, 2017)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 신용 의무(Are you fiduciary?)가 있습니까? 신용 의무가 있다면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 내 돈을 투자하며 제삼자(뮤추얼 펀드, 보험 회사, 등)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까?

*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Total Expenses)를 종목별로 구분해서 얼마씩 부과되는지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까?

* 투자 수익률을 문서로 작성해서 고객에게 발표합니까?

*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합니까?

*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소개하며 사례금을 받습니까?

*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형성하면, 투자 위험성을 가능할 수 있도록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누구나 본인들이 재정설계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할 마음이 있다면 정부 기관에 등록하면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 의무’ 없이 일하는 재정설계사가 과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는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신용 의무’는 은퇴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세금을 낸 개인이나 조인트 계좌(Joint Account),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설계사가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공인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재정설계사를 고용하기 전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확인한 후 나의 소중한 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 증여세 (11)

- 가족의 빚 대신 갚을땐 은행 등에 직접 갚아야 유리

미국 시민권자인 김한국씨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있는 동생의 은행채무를 대신 갚아주고자 합니다. 이 때 동생의 채무를 직접 은행에 갚는 것이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가족의 빚을 대신 상환하거나 떠안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제 3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김한국씨가 동생의 채무를 갚아주는 방안으로는

- ①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동생이 은행의 채무를 갚는 방안과
- ② 김한국씨가 직접 은행에 갚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안은 궁극적으로 동생의 채무가 소멸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증여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현금을 증여한 경우

먼저,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동생이 본인의 은행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증여자인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겨

한국은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내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하여 납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수증자인 동생은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증여자인 김한국씨에게는 동생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즉 동생이 증여세를 내지 못하면 김한국씨가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이는 현금을 증여하면 수증자인 동생이 내던 증여자인 김한국씨가 내던 누군가는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은행채무를 직접 갚는 경우

그럼 김한국씨가 동생의 은행채무를 직접 은행에 갚으면 김한국씨가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은행채무를 갚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수증자인 동생의 증여세가 면제될 수도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보면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

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가 동생의 은행채무를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경우 동생은 김한국씨가 대신 갚아 준 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제4항을 보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동생은 김한국씨가 대신 갚아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게 원칙이나,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자인 김한국씨는 연대납세의무 없어

한편, 증여자인 김한국씨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한국씨는 동생이 내지 못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제5항. 따라

서 동생이 증여세를 내지 못한다해도 증여자인 김한국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한국씨는 한국의 증여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결국 위 1. 현금을 증여한 경우와 2. 은행채무를 직접 갚는 경우를 비교하면,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때는 채무자에게 현금 등을 증여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은행 등)에게 갚게하는 것보다 가족이 직접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김한국씨의 미국의 증여세

한편, 미국은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거주자인 김한국씨는 동생의 채무상환액에 대해 미국의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즉, 김한국씨는 동생에게 증여한 금액 중 연간면제액(Annual Exclusion: 2017년도의 경우 \$14,00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제 증여세를 내야하는 지는 통합세액공제액(Unified Tax Credit : 2017년도의 경우 증여가액 \$5,490,000의 해당세액 \$2,141,800)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김한국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동생은 한국의 증여세 계산 시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9월 첫째 주)

● **DACA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

트럼프 행정부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DACA의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몇가지 자격조건을 갖춘 청소년 서류 미비자들에게 추방을 면제해 주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작한 제도입니다.

다카의 폐지는 트럼프의 선거공약 중 하나이긴 했지만 설마설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반이민제도와 달리 이번 폐지가 반이민진영에서도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다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류 미비자가 된 어린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Dreamer 라고도 불린 이유입니다. 또한 추방면제의 조건으로 신청자들의 많은 신상정보가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된 점도 이번 폐기가 비난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참 치졸

한 행위가 되버렸습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의 악인들이나 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즉, 추방을 유예해줄 데니 너희들 정보 다 쥐라고 해놓고 이제 정보를 다 주니 추방유예는 없던 일이라고 한거죠.

아마 이번 폐지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어 보이며 필자도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현재 다카의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꼭 확인 하셔서 이번 사태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껏 한번도 다카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분들

- a. 9월 6일 이후 새로운 다카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청서) 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b. 즉, 지금까지 다카를 신청하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다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9월6일 이전에 신청된 모든 다카(처음으로 신청하는 신청서와 연장 신청서)

3. 아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현재 다카 수혜자

- a. 이 기간 신청된 새 신청서와 연장 신청서들은 계속해서 아무 변동없이 심사됩니다.
- b. 단, 신청서와 함께 신청된 여행허가서는 모두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 a.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허가서(EAD) 는 카드에 나와있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b. 지금 가지고 있는 여행허가서 또한 카드에 나와있는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c. 본인의 다카가 9월 5일과 2018년 3월 5일 사이에 만료되는 분들은 한번 더 다카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 신청은 반드시 10월 5일 이전에 신청되어야 합니다.
- d. 본인의 다카가 2018년 3월 6일 이후에 만료되는 분들은 더 이상 연장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다카 수혜자 분들은 가급적 해외 여행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4. 추방에 대한 대비

- a. 이민국은 다카로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를 ICE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기관) 과 CBP (출입국관리소) 와는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 b. 언제나 비상시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한두 개는 외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c. 영장 없이는 집이나 직장으로 이민국 직원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 d. 혹시 체포된다면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카폐지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큽니다. 이 청소년들을 구제할 법안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 사회가 제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Mortgage 6 - 1

모기지 프로텍션 인슈어스가 필요한가요?

집장만을 했거나 리파이낸스를 한 이후, 마치 모기지 회사에서 직접 보낸 공식적인 편지와 같은 광고지를 흔히 받습니다. 내 이름과 주소는 물론이고 은행이름, 융자금액과 어느종류의 모기지인지도 쓰여있고 다음과 같이 큰 문구가 써있습니다.

"IMPORTANT NOTICE: PLEASE COMPLETE AND RETURN"

"FINAL NOTICE: MORTGAGE PROTECTION CARD"

"NOTICE OF OFFERING: MORTGAGE FREE HOME PROTECTION"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을 구매하라는 광고이고 그 내용을 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가족은 매월 납부금을 내며 과연 지금과 같은 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듯 합니다. "이 플랜이 없다면 당신의 가족은 계속해서 매월 모기지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만약의 비극이 일어난다면 모기지를 갚아 집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모기지 렌더(lender)와 연관이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대출자의 정보를 받아 광고를 하거나 공개가 되어있는 정보를 통해 보험사들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MPI)은 사실 일반 정기생명

보험(Term Life)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모기지 프로텍션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MPI는 유연성이 없다.

모기지 프로텍션 인슈어스(MPI)는 가입자가 사망시 보험금이 오로지 모기지를 갚는 용도로만 사용되는게 대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 렌더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되며 가입자의 가족이나 수혜자는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 Term Life(정기생명보험)의 경우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MPI와 같이 모기지를 갚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의 추세는 가입자가 위독한 경우 부분적으로 병원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이 사망 전 미리 지급(living life benefit)이 되기도 합니다.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금이 내 가족에게 직접 전해진다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텍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비용.

모기지 프로텍션 인슈어스(MPI)의 비용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광범위하고 불확실하며 변동사항도 많습니다. 반면 동일한 보험액기준 일반 정기생명보험(Term Life)의 납부료는 더 저렴합니다. 예를들어

35세기준 30년 MPI(State Farm)는 일년에 755불정도 일 수 있고 같은 보험액 기준 30년 Term Life를 가입한다면(Banner OpTerm) 건강할 비흡연자의 경우 연 345불이거나 건강이 우려가 되는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연 677불에 불과합니다. 일반 Term Life의 납부료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MPI의 경우는 가입 5년후 납부료가 인상이 되기도, 인하가 되기도 합니다.

줄어드는 보험액.

MPI는 일반 Term Life가 기반이기에 시간이 지나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대부분 일정한 납부금액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망 보험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MPI의 목적은 오로지 현존하는 모기지 금액이 기준으로 동일한 납부료를 지불하더라도 실제적인 혜택금은 그에따라 줄어드는 Decreasing Term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지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며 줄어드니 이것이 주목적이라면 보험금도 이런 성향을 따르는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Term Life는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납부료 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보장됩니다. \$500,000 30년 모기지를 예를들면 10년 후 남은 금액은 \$400,000이 됩니다. 이런 경우 MPI의 혜택금도 \$500,000에서 \$400,000으

로 줄어 들 수 있는 반면 동일한 기준의 일반 Term Life는 계약일부터 30년후 만료일까지 \$500,000이 보장됩니다. MPI의 계약만료 이전에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다면 일반 생명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심사 기준은 나이이기에 이때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시작부터 일반 Term Life를 가입하였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수정은 시작부터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않은 원금반환 MPI가입시 원금반환 추가옵션을 선택한다면 계약만료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다른 보험 상품과 같이 확연히 높은 납부료가 요구됩니다. 짧게는 15년, 일반적으로는 30년인 모기지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계약만료시 원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집값 상승 외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더라도 30년전과 지금의 물가차이는 차마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MPI의 원금반환 옵션을 생각한다면 비용의 차액으로 동일한 원금반환 옵션이 있는 3대 질병(암, 뇌, 심장)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 MPI 원금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송동호종합로펌 최강이민팀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같은 스펙,
다른 결과!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NIW 금주 성공 사례

- J. Lee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서울대 전문학과 학사 & 석사,
콜롬비아 전문학과 박사, 논문 5개, 인용 39개
- W. Choi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아주대 생물공학 학사 & 서울대 석사,
미시건 주립대 생물공학 박사, 논문 6개, 인용 123개
- J. Chang 고객 NIW 승인 케이스
-UC Irvine 생명공학 학사, Case Western 의대,
논문 2개, 인용 2건

NIW 해당 전공

• 컴퓨터/전자공학	• 의학/약학/간호학
• 생명공학	• 유전학/면역학
• 생화학/생의학	• 분자생물학
• 우주공학/천문학	• 치의학
• 환경공학	• 전염병학
• 재료공학	• 과학 교육
• 로봇공학	• 임상심리학/심리학
• 물리학/화학	• 경영학

※ 이 외에도 가능한 전공들에 있으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Q | 400 Kelby St., 7th Fl., Fort Lee, NJ 07024 •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CA • CT • DC • GA • MA • MD • NJ • NY • PA • V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 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7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 연매상 \$160,000 소유자 은퇴(32년)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톤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1명+직원5명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Saturday LOCK-IN” Class 집중 토요일 반 (중/고등학교)

- 밀착형 학업 관리
- 내신 성적 수시점검 및 체크
- 과외 선생님 취약점을 보강
- SAT/SSAT 쓰기능력 보강, 1:1 Essay첨삭지도 진행



Grade

SSAT: 8, 9학년 (시작일: 9월 16일, 4주)
SAT: 10, 11학년(시작일: 9월 9일, 4주)

Date & Sessions

매주 토요일 9시30분 - 4시10분
(총7시간, 점심 시간 포함)
SSAT시작일: 9월 16일, 4주 (총4번, 28시간)
SAT시작일: 9월 9일, 4주(총4번, 28시간)

Tuition and Fees

1 month Course: \$650
Application Fee: \$50 (Non- Refundable)
예전 멤버 분들은 Waive됩니다.
Material Fee: \$50

Daily Schedule

09:30am-11:30am	PSAT/SAT or SSAT 수업(English/Math) 철저한 밀착 관리를 바탕으로 그날 배운 수업의 오답노트 작성, 필수 단어와 문법 점검, 질의응답까지 그날 배운 것들을 그날 소화할 수 있습니다.
11:30am-12:30pm	Study Hall (에세이 작업 & 학교 수업 체크) 스터디 홀에서 자습과 복습을 하면서, 관리 선생님에게 수업 체크를 받아 부족한 부분과 개선 방향을 매주 체크 합니다.
12:30pm-01:00pm	점심 영양가 있는 식사로 공부 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합니다. (별도 요금 발생)
01:00pm-04:10pm	Practice Test 선문제를 풀음 으로서 매주 훈련 합니다.

저희 보스톤 교육원만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사추세츠 지역 공립 학교에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 수업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밀착 학업 관리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출문제와 함께 SAT/SSAT 성적 향상(Math, English, Essay 첨삭)을 한번에 해결합니다. 저희는 SAT/SSAT만을 전문으로 케어 하고 있으며, SAT/SSAT 철저히 분석하여, 영역별 정리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SAT 정규반 인원은 6명 입니다. SSAT 정규반 인원은 4명입니다.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